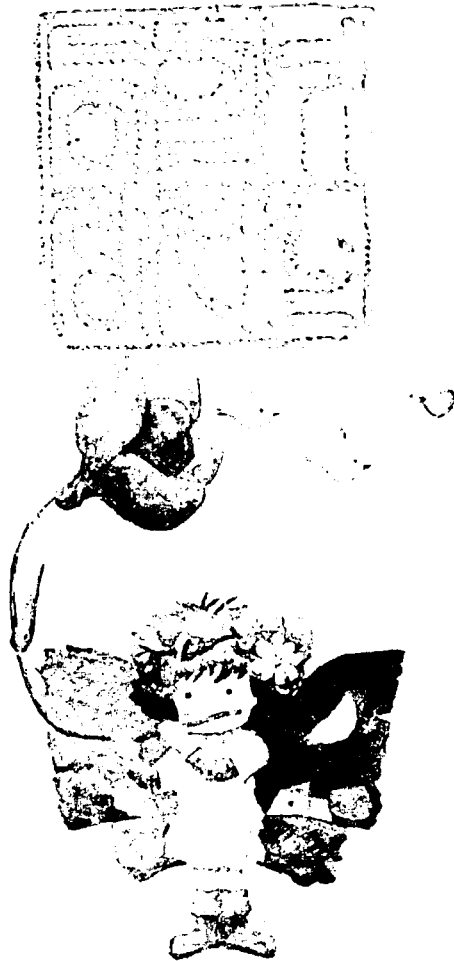


너와 내가 하나되어

6·15 공동선언 1주년기념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통일교육원

목 차

서울

초등학교

나의 꿈을 담은 비누방울 > 김정현.....	3
허리띠를 졸라맨 호랑이 > 정인혜.....	5
갈 수 없는 땅 > 박진수.....	6

중학교

휴전선의 매듭 > 정재훈.....	8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 노혜량.....	10
비가 > 이은주.....	13

고등학교

그리는 마음 > 이지연.....	17
강건너 > 임승희.....	19
종착역 그곳에서 > 안미영.....	22

부산

초등학교

그분들이 사랑했던 조국 > 정다니.....	27
분단의 아픔 > 신승용.....	30
우리 마음이 바로 통일이에요 > 신현정.....	32

중학교

통일조국 > 엄정혜.....	34
-----------------	----

내가 기다리는 편지 > 김슬기	36
새가되어... > 김재현	39

고등학교

철마를 보며 > 안지언	41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보면서 > 강인혜	44
형제여! > 정해주	47

대구

초등학교

휴전선 없어진 날 > 김영주	51
우리는 하나 > 이승희	53
통일여행 > 권정현	55

중학교

외할아버지의 꿈 > 홍수현	57
하나 > 정지민	60
할아버지의 담배 > 김은송	63

고등학교

고목의 꿈 > 심은경	66
그대에게 > 박연진	69
꿈의 기도 > 이가희	71

인천

초등학교

그 날이 오면 > 최용남	75
하나됨을 위하여 > 정종훈	77
하나됨을 위하여 > 김은	80

중학교

우리는 하나 > 오제석	82
하나됨을 위하여 > 최은영	85
우리는 하나 > 송지혜	88

고등학교

하나됨을 위하여 > 고두연	91
하나됨을 위하여 > 이정복	95
우리는 하나 > 김은경	98

광주

초등학교

통일이 코 앞인데 > 김은영	103
마술 지우개 > 이슬	105
염원 > 정태원	108

중학교

민들레 꽃씨처럼 > 이혜민	110
너도 나도 통일의 증표가 되자 > 김보영	113

늙은 어머니와 아들 > 정민.....116

고등학교

슬픈 진실과의 이별 > 장은지118

위대한 씨앗의 힘 > 장일령.....121

너를 만나면... > 이인원123

대전

초등학교

큰 민족 한 민족 > 김요섭129

민들레 꽃씨처럼 > 이아름.....131

통일의 하모니 > 김혜선.....134

중학교

통일의 노래 > 신다혜.....137

동토에 나는 햇살 > 황은하140

진달래꽃 필 적에 > 김성태.....142

고등학교

백발의 모자 그 짧은 만남 > 백상숙144

역사의 진리위에 통일의 다리를 놓자 > 이윤학...147

이산상봉 > 남궁현152

울산

초등학교

통일을 바라는 마음 > 박현규	157
친구야 > 송은별	159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 > 권예진	161

중학교

두 형제 > 임수연	164
짧은 만남 > 박민희	166
이산가족 > 박예정	168

고등학교

홍청산 > 강설지	170
소망 > 이상훈	173
통일전망대 > 박성진	176

경기

초등학교

가위와 풀 > 김지은	181
너와 내가 하나되어 > 이창희	183
통일의 노래 > 지새봄	186

중학교

나의 기도 > 방혜진	189
벽 > 박성희	191

새가 된다면 > 김현식194

고등학교

낙원 > 최호정198

건허라, 안개야 > 김유나201

혈류 > 박태준203

강원

초등학교

기쁜 만남 > 최윤지207

풍선속에 사랑의 편지를 > 이지수210

통일의 길 > 문상돈212

중학교

금강산을 바라보는 눈으로 > 민지혜215

친구야 손을 잡자 > 정유경218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 김보경221

고등학교

노인의 추수 > 송영운223

민들레 소망 > 박하나225

그대 누운 자리에 > 최희진228

충북

초등학교

그날을 기다리며 > 장소영.....	233
6월 > 윤희원.....	235
통일의 그날 > 남원숙.....	237

중학교

소망하는 것은... > 오현정.....	239
비틀 내리소서 > 남솔은.....	242
하늘을 보며 > 조혜연.....	244

고등학교

통일피리 > 박윤희.....	246
물처럼 > 홍은숙.....	248
겨울은 가고 > 나지영.....	251

충남

초등학교

둥글게 둥글게 > 정유진.....	255
통일조국 > 최진실.....	257
두 손 잡았듯이 마음도 잡아 > 이욱.....	259

중학교

일구는 통일 > 이해윤.....	262
애기봉 제비꽃 > 마대형.....	264

http://www.통일.com > 광관봉.....266

고등학교

만남 > 편승수268

희망의 소리 > 양미화270

형제의 다짐 > 천해범272

전북

초등학교

이별의 아픔은 이제 그만 > 박성훈277

평양 할머니 > 김태래280

통일의 악수 > 김혜인283

중학교

만남 > 김대인285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서 > 김민재287

그날이 오면 > 황진희290

고등학교

서로를 그리워하는 천지와 백록 > 김나래295

통일 > 이동우298

6월의 주인 > 라현302

전남

초등학교

갈라진 우리 땅 > 오지운307

별을 바라보며 > 박아름309

화해·협력·통일을 위한 사계 > 윤우정314

중학교

민족의 배 > 김수현317

목메이는 한반도 > 조아라320

소망 > 이미지323

고등학교

그대에게 > 박세희325

그리움 > 강혜지329

팔지 않는 기차표 > 최다은332

경북

초등학교

통일의 꽃밭 > 진해나337

통일의 노래 > 김낙경339

태극무늬의 어울림 > 장미선341

중학교

북녘 친구에게 > 안새솔344

이제 > 정연희347

친구들아 > 윤미경350

고등학교

핏줄 > 이희웅352

통일을 기다리며 > 김장은.....354

우리가 하나되면 빛을 발하리이다 > 김미정.....357

경남

초등학교

들판 > 이유진363

작은 필름 들판 > 이승미365

그 날, 들판을 날아서 > 박상아.....367

중학교

들판 > 정민경369

어머니를 닮은 들에 서서 > 진의난372

들판 > 도예린375

고등학교

들판 > 이민정378

들판에 비 내리면 > 우은진.....382

들판 > 이소영383

제주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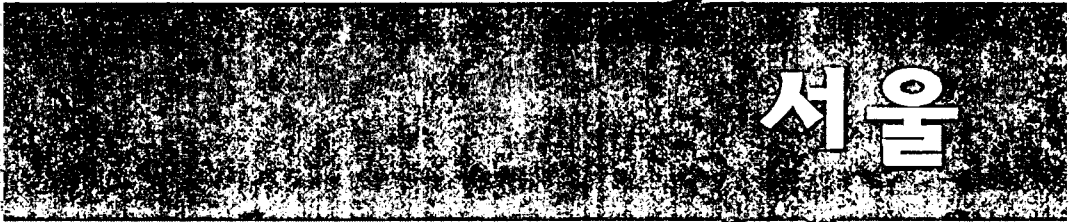
희망의 꿈 > 양지연	387
통일을 향한 민들레꽃씨 > 김혜지	390
함께 부르는 아리랑 > 최이나	392

중학교

내 반쪽의 기다림 > 이분화	395
철조망 너머의 세상 > 문솔	398
두 나그네 > 고선의	400

고등학교

하늘에 구름이 피었다 > 김경희	402
호각소리 > 강민협	405
할머니 > 박규빈	407



서울



나의 꿈을 담은 비누방울

김정현 / 고은초등학교 6학년

높고 넓은

하늘 향해

후~

후~

비누방울 불어보았어요.

동글동글한

오색빛의 비누방울들이

나의 꿈을 갖고

휴전선 철조망너머에서

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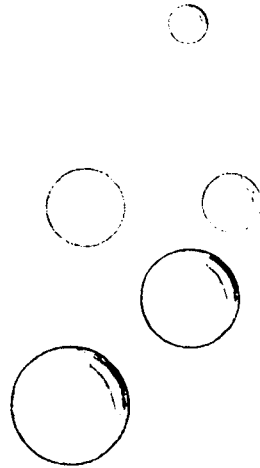
톡~

내 꿈을 뿌렸어요.

가장 큰 비누방울에는
우리들이 손잡고
학교가는 꿈을

작은 아기 비누방울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 지도의 휴전선을
속삭속삭 지우개로 지우는
꿈을 담아보았어요.

높고 넓은
하늘 향해
후~
후~
비누방울 불어보았어요.



허리띠를 풀라맨 호랑이



정인혜 / 홍은초등학교 5학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
누가누가 호랑이의 허리띠를 풀라맷는가?

위에는 배가 고파 째째
아래는 배가 불러 허둥지둥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호랑이
하루빨리 자유롭게 살고 싶은 호랑이

분단의 허리띠를 풀고
통일의 행복을 바라는 호랑이

누가누가 호랑이의 허리띠를 풀어 줄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호랑이는 자유를 원한다.

갈 수 없는 땅

박진수 / 홍대부속초등학교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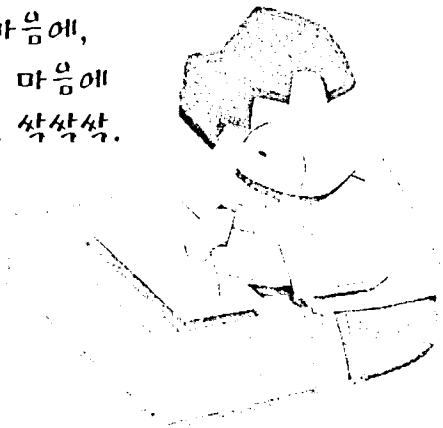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다.
동해안은 쪽우묵,
서해안은 들쪽날쪽.

지도 앞에
팔도의 이름을 적었다.
평안도, 함경도
남천은 이름들.

허리를 가로질러
길은 그렸다.

아파하는 토끼,
힘없는 호랑이.

미안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지우개로 쓱쓱쓱.



휴전선의 매듭

정재훈 / 청운중학교 2학년

묘한 향기 가득한 묘향산은
환웅이 내려와 터 잡은 곳
검은모두동굴 구석기인은
우리 민족 한 조상

혈조망 너머 강물도
똑같이 너머 강물도
똑같이 파란 빛인데
휴전선에 머무르는 무거운 침묵
혈조망 가시에 내려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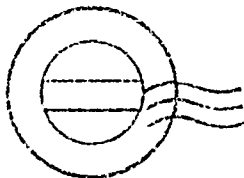
금강산 대동강 아름다운 정취
 햇살 가득한 고향집 뜨락에
 아직도 놓여있을 검정 고무신
 온 몸 저린 그리움은
 아픔이 되고...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실 변이나 오고 가고
 이제야 삭 트는 초록가지 가지마다
 통일의 희망 매어달리고

녹슨 철조망 가시마다
 다시 비추이는 햇살에
 게으르게 묶어 놓은 매듭
 하나하나 풀려난다.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노혜량 / 윤중중학교 3학년

목이 메어오는
눈물을
가슴으로 삼킬 50년.

잡힐듯 잡힐듯
아무리
달음질을 쳐봐도
꿈에도
그리운 당신
어머니

어둠속의
당신은
내게
곱게 다린 흰 모시수건.

이제는
바래버린
당신의
여윈 눈물은
내게
지친 가슴, 멍물진 슬픔이 되어
자꾸만
자꾸만 무너져 내립니다.

견딜 수 없어
내 눈에 겹이진
어머님 얼굴은
살아온 날들의
끝없는 이야기
어머니,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잘 다린
하이얏 모시슈겜

-꼭 다시 만납시다.

당신의
작은 손뼉
꼭잡고...

어머니,
당신의 아득한 눈물
다 씻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하이얏 모시슈겜으로
지금
당신의 눈에
어리운 눈물
담아 드리겠습니다.

비가(悲歌)

이 은 주 / 상계중학교 3학년

오늘따라 당신이
제 가슴 속에 고여옵니다

고이고 또 고여
가득 차게 되면

흘러내려 당신을
잊을 수 잊을까요

그때하실 그 말씀 하나까지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는데

망초꽃 향아름 안겨주시며
해말은 웃음 지어주시며

첫번째도 아닌
두번째 겪는 이별
뭐가 그리 두렵냐고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 고운 분이

얼굴 가득 웃음꽃 피어
나를 반겨 달라고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패여갈
모집 주름 때문일지라도

당신에 대한 기다림으로
나를 속여갈
세월의 무정함 때문일지라도

저는 다시 당신께
어느 고운 웃음을 보이리오

오늘따라 당신이
제 가슴 속에 고여옵니다

어느새 눈감으면
우리가 점점게 샅샅이
북녘 보금자리에서
바알강에 물드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곧 당신과 만날 터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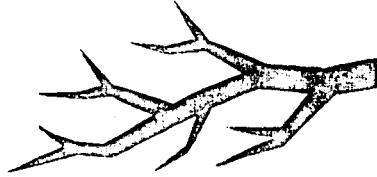
먼저가서 기다리겠어요

그때도 당신은
해맑은 웃음으로
나를 불러주세요

그때도 저는
수줍어 볼에 홍조피어
당신을 뵈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픈니다.





고리는 마음

이 지 연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나 여기서 너를 본다
강 건너면 땅을 고향,
말없이 흐르는 거 강물 위로
죽음 앞두고 흘린
넌 향한 할머니 눈물 보았다.

있어 버린 어린 시절
그리다 지쳐
늪은 몸이 끌고
이 곳에 왔건만
겨우 눈물 훔치는
이 마음 아느냐.

북쪽서 흘러 온 이 강물
네 손 한번 적셨던가
내 콧가 스치는 이 바람
네 숨소리 담았던가
너와 내 눈이 닿을 이 하늘에
그 끝이 어디던가.
살들도 맥을 잇고
물도 바다에서 합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너는 곧 나인 것을.

나 이제 내게 손짓할테니
너는 곧장 내게 달려오려무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이제 우리 손을 맞잡자꾸나.

강 건너

임 승 희 / 배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강 건너 섰다.
이 강 하나 놓고 너랑 나랑
마주 보고 섰다.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구름은 말 없이 가고
너랑 나랑
마주 보고 섰다.

너를 보고 잊으려니
꼭 나 같고
함스러움에 눈이 시린다.

내 혼은 저 강물을
 푸덕푸덕 헤엄쳐
 네게 가는데

얇개 속에 숨은 아이야.
 이 강물 마르길 기다릴테냐.
 50년 눈물에 북풀어오른
 이 강물 마르길 기다릴테냐.

가자 가자 나무하러 가자.
 커다란 돛단배를 뚝딱 지어
 너랑 나랑
 한데 만나자.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구름은 말 없이 가고
 너랑 나랑은
 마주 보고 섰다.

아이야 낚 달은 아이야.
그 낚이 오면
우리의 돛단배가
하늘 높이 새 하얗 돛을 물리면

마주 보고 섰는 이 강을 건너
너랑 나랑
함께 만나자.



종착역 그 곳에서...

안 미 영 / 동봉정보산업고등학교 5학년

작은 공간안에 갇힌 세상빛을
보낼 시간이 얼마남지 않음을
창에 비치는 내 눈망울이
알려주고 있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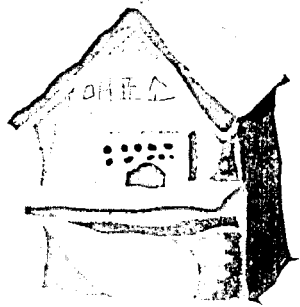
함줄기 소망이 되어
창틀타고 내려온 참할 따사로움은
얼개 내 잠을 깨우며
가파워지는 종착역의 기적소리 알렸소.

밖 딴은 종착역 입구 앞에서

낯 마치...

어린 가지에서 섬숙된 가지가 되듯
고개 숙이지 못한채
어엿픈 발악을 했구려.

종착역 멀리
푸르스름한 강가엔
물 들레가 퍼지며 낯 손짓하고
부둥켜잡 내 손엔
애환이 깃들여 동점의 눈길 만드니
수 놓아진 먼 땅은
어느새 내 가슴안에 들어와 있었소.



발악하던 내 모습은 뒤로한채
작은 망원경안에 빠져
큰 바램 이뤄보자 기도하며
한 힘춘 바치겠다고 외쳐보았소.

낯... 이리도 슬픈데
강가위에 백로는 무엇 아는지

즐거이 춤만 추고 있지 않겠소?

세월이라는 허튼 물결속에
아쉬움은 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따사로 온 빛을 편지에 담아
백로의 춤과 함께 띄어보냈구려.

여보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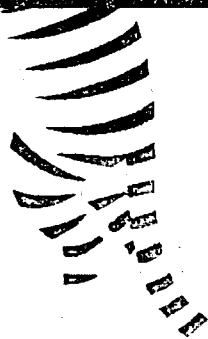
아마도 띄어 보낸 편지
그곳의 등직한 등대가 될 것이고
남은 할일 기도 뿐이라
서둘가는 표 끄으러
발걸음 종착역에 돌려야겠소.

멍 훗날 나...

아마도... 북도 들녘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지개를 피고 잊겠구려.



부산



그 분들이 사랑했던 조국

정 다니 / 하남초등학교 6학년

6월의 하늘에는
사랑 · 슬픔 · 희망이
떠 있습니다.

6월의 대지에
가마히 누워 보면
그 분들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6월의 강물에
가마히 귀 기울이면

그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6월의 바다 내음에
가만히 코기울이면
그 분들의 식직한 내음이
물어옵니다.

그 하늘에는
은빛 비행기가 떠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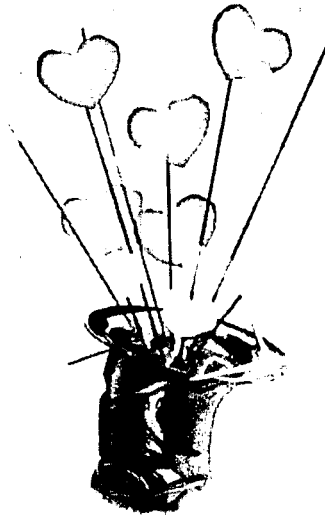
그 대지에는
향긋한 흙내음이 번지고,

그 강물에는
선열들의 뉘이 흐르고,

그 바다에는
우리들의 행복이 떠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그 분들이 지켜주신
조국.

향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신승용 / 보수초등학교 6학년

이제야 저는
그 분들의 슬픔을
알것 같습니다.

가슴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헤어짐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이 마를세도 없었던 그 분들

스라핌 추억만을
가슴에 담고
원망하며 사시던
그 분들

저는 왜 이제껏
 그분들의 통곡소리를
 듣지 못했었지요

그분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그분들의 아픔이 산맥을 이루도록
 알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이제는 약속드립니다.
 언젠가는 잊지 못할
 50여년의 아픔을 담고.

우리 땅을 가른 그 선을
 우리의 마음을 가른 그 선을
 지워야 하는데
 지우고 싶는데
 지워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통일이예요

신 현 정 / 동래초등학교 5학년

작은 새들이
휴전선 넘어
금강산, 설악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걸
부러워 했지요.

압록강 강물이
낙동강 강물과
하나되어
남해바다로 흘러가는걸
부러워 했지요.

이젠 아니예요

다대포 앞바다에서

풍악호 타면 금강산도 가깝아요.

북한의 예술단도 오고

이산가족들이 상봉도 하는 걸요.

우리를 갈라놓은

가시같은 철조망너머

우리의 따스한 마음이 전해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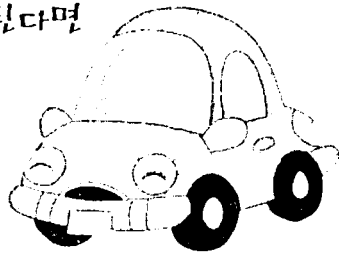
100년만의 가뭄도 이겨내겠지요.

해님이 온 누리를 골고루 비추듯

우리의 따스한 사랑이 계속된다면

아빠 승용차 타고

금강산도 갈 수 있어요.



하나된 우리 마음,

하나된 우리 생각이

바로 평화통일이지요.

남북이 하나일 때,

통일은 우리 눈앞에

덤큼 다가오겠지요.

통일조국

엄정혜 / 부산서여자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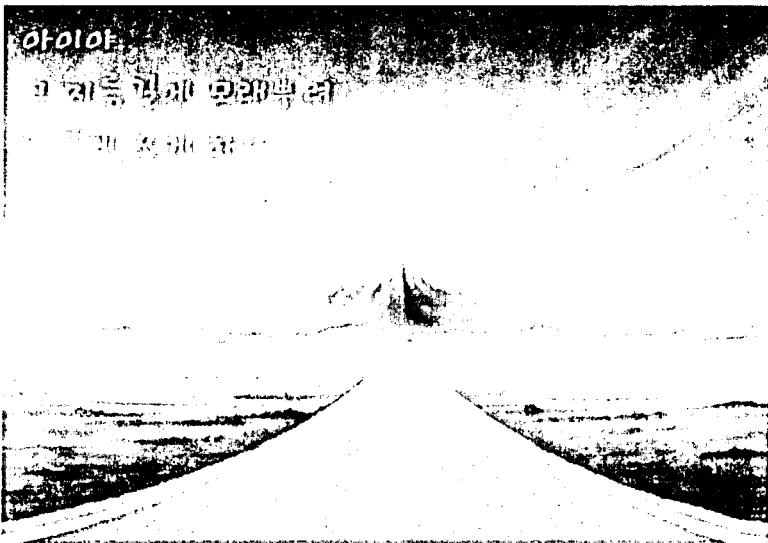
한라에서 백두까지
흙살 밟고 춤출 날
머지 않았단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함뭉되어 어물러질
쪽빛 유월 내 조국이 웃고 있다.

금강산 뱃길이 트이더니
이제사 보드랍고 살진
통일 될 육로 오솔길이 트인단다.

반 백년 바알간 장미속살 갈등일랑
 포근한 가슴으로 삭여내고
 텅텅게 속살일 새벽을 준비하자.

강물은 흘러야 맑은 아름다움이 되고
 땀흘려 맺은 풍요로움은
 통일 조국 앞당기는 지름길이란다.



내가 기다리는 편지

김슬기 / 덕천여자중학교 3학년

나는 우체부입니다.
기다리는 소식들을
함 가득 안고서
문세상 가득 전해주는
우체부입니다.

저녁즈음
가로수가 골목길을 밝히면
오늘도 좁은 그길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저 멀리서
언제나 처럼
가로수 불빛을 가르고
서 계시는 할머니

오래 나를 쳐다보지만
할머니께 온 편지는
오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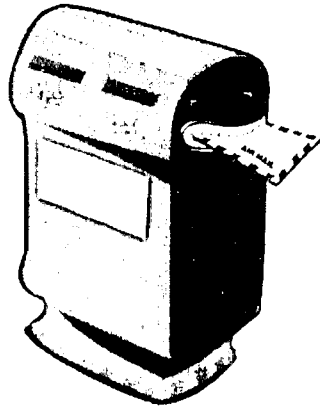
할머니의 긴 한숨소리에
내맘 한켠이 아파옵니다.
“할머니 무슨편지를 기다리세요?”
“응.. 북에있는 아들, 딸... 저 멀리북에...”

차마 잊지 못한 말속에
눈물이 맺힙니다.
있는 힘껏 참아내시는
할머니의 눈물은
한맺힌 지난 세월
보여주듯 합니다.

행여나 찾아올까
이사한번 못하시고
편지만 기다리시는
할머니

늘어난 주름살만큼
오래토록 기다릴
소식들..

이제는 기다리는
저 복의 소식을
할머니 두손에
꼭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새가 되어...

김재현 / 덕원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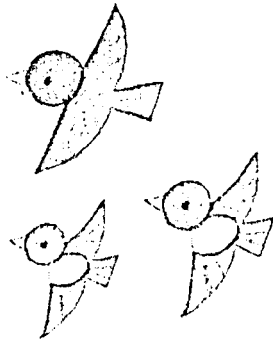
함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다.

50년이라는 세월도,
눈물과 불심으로 싸였던
시각들도 다 필요없다.

저 드넓은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 있다면...

다시 날고 싶다.
그날... 우리들이 만나는

빛의 축복된 그날
하이얀 새들은
날 수 있다.



창공의 흰 새여!
갈라진 대지를
그대의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새가 다시 날으는 그날!
우리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철마를 보며

안지연 / 경혜여자고등학교 3학년

친구여

저 산등성이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세월에 지친 철마의 몸뚱어리 위로

시퍼런 혈조망 그늘이 내려 앉는다.

귀 기울여

모두 잠든 깊은 밤에 들어본 일이 있는가.

옛 시절에 취해 잠플 돌은 레일위를

미친 듯 달리는 철마의 비명을

한없이 달려

사무치게 그리운 북녘에 가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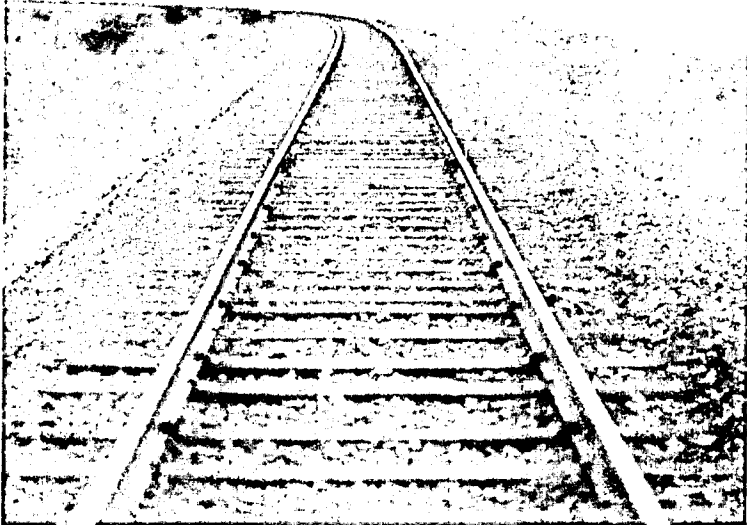
총탄도 나를 못막으리라는 그 비명이
 형역같은 너의 마을에도 들리는가.

달리고 싶은 것이 어디 저 혈마 뿐이라.
 한 발의 총탄이나 비린 피로도 파괴되지 않은
 우리의 근원이 내 가슴에, 네 가슴에도 맺혀있어
 이 태양 아래 나도 달리고 싶어라.

경강한 땀흘려
 너와 나 작은 두 손으로 녹슨 레일을 닦자.
 반백년 갈리웠던 하늘에 힘찬 새 입김을
 푸우푸우 소아 불려줄 저 혈마의 길.

우리 이제 극태여
 강물에 씻겨간 젊은 피에 물지 말고
 땅속에 파묻힌 총탄을 원망 말고
 오직 앞으로 곧게 뻗은 레일을 닦자.

아직은 머연 친구여
철마가 비명을 거두고 힘차게 달리는 날 우리도
허리뼈 골은 호랑이 위로 비둘기 날으는
그토록 그리던 우리의 근원으로 달려가자.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보면서



강인혜 /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3학년

검은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면서
한 밤의 총성이 울린다.

아

내 가슴이 깨지는 거 총소리.

북녘 그 어느 소녀의

가슴에도 금이 갔을까?

숨죽이는 영화관의 관객들 속에

혈조망을 꿰뚫은 달빛이

화면가득 넘실거린다.

남과 북

북과 남

그들이 마주 섰을 때
 그들이 우리처럼 달빛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처럼 우정을 느끼고.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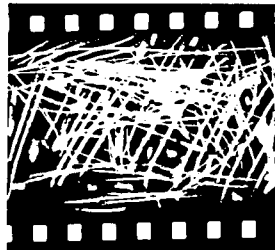
하나라는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작은 의심
 그들의 혈조망 사이로
 더이상의 달빛은 없었어.
 단지 두려운 피바다 뿐이었지

우리 고개를 돌렸어.
 모두들 이유모를 눈물을 흘려야 만 했지
 미워하는 마음과 스라리 연민
 그 정답던 달싸움의
 낱개 퍼득이는 소리도
 두개로 나눠먹던 초코파이의
 그 달콤함도
 건물속에 사라지고

사랑과 증오
증오와 사랑
교차되는 지점에서
또 다시 한 서린 달빛은 더욱 차갑고

진심을 얘기하며
서로를 향한 충부리를
이제는 그려야 할 때.

아 우리 서로에게 충을 거두고
열싸얏고 아리랑 춤 추어야 하리.
우리 함께 하나 될 사랑의 춤을.



형제여!

정 해 주 / 경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분단의 채찍질로 동포의 살점은
 허리없는 대지 위로 던져져버렸고
 봉유하던 젊은 영의 몸뚱이는
 자유만을 갈구하다 산산히 부서지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돌맹이가 되어
 거짓된 역사의 강에 파문이 되고
 진실한 역사의 햇불만이 되어
 오십여년 더럽게 할아댔던
 가식의 덩어리에 불을 붙히고,
 쪼아터진 관념 속을 빙빙 돌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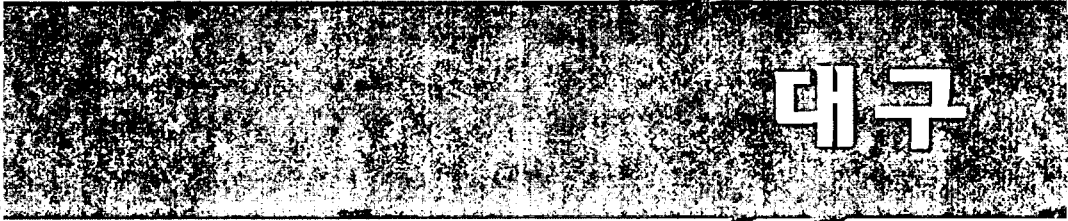
삼팔선의 공명에다
희망을 소아몰리자!

오동치는 심장 속 타는 민족의 피는
내리던 혈의누도 내 앞의 넓은 마음의
소금들도 다 녹여만 버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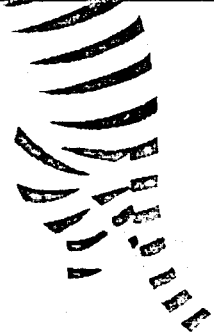
우리의 타고 남은 가슴 속에
소화수를 붓자, 방화수를 붓자!
남은 재는 다시 기름되어
민족의 情속에 활활 타 오르리.



이정



대구



휴전선이 없어진 날

김 영 주 / 대구시지초등학교 6학년

북쪽의 아버지와
남쪽의 아들이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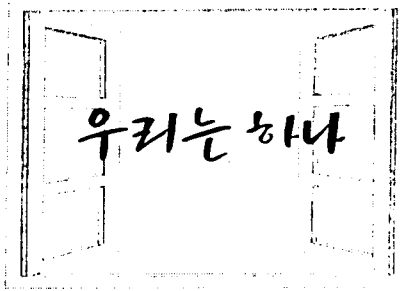
아기였던 아들이
흰머리 되어
처음보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민들레꽃 피면
온가족이 모여 살자면서
민들레꽃씨 한 움큼
뿌리고 가셨습니다.

아들은 앞뜰 가득 핀
민들레꽃 들여다 보면서
송이송이
아버지 얼굴 그려봅니다.

휴전선 있던 자리
민들레꽃 피워
온가족 웃음꽃 피울
그날 그리면서
아들의 얼굴엔
민들레꽃보다
더 환한 웃음꽃
피어 오릅니다.





이 승 희 / 대구입석초등학교 5학년

2000년 6월
50년 전 피로 얼룩졌던
6월의 한반도 땅
역사의 한 모퉁이 돌아
평양 순안 공항에서
마주 잡은 두손
그 손길 사이로 트이는
희망의 길

2000년 8월
서울에서 평양에서

눈물 바다가 만든 길
50년 끊어졌던 혈육을 잇고
그 눈물 속에
세월은 다시 연결되고

2000년 9월
호주 시드니 올림픽 한반도기 맞잡고 입장할 때
세계의 사람들이
기립 박수 쳤다네
통일로 향하는 발걸음
힘차게 내디뎠다네

하늘 길도 열렸다
마음의 문도 열렸다
한반도의 등뼈
경의선이 완성되는 날
땅길 마져 열면
남과 북 우리는 하나

통일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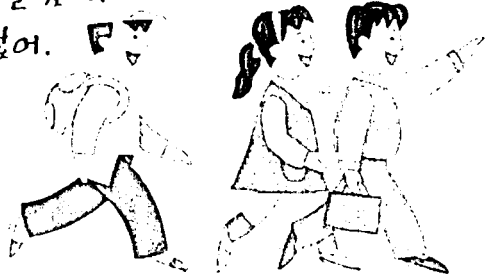
권정현 / 대구관남초등학교 4학년

방학이 되었어.
우리들은 배낭을 메었지.

경의선으로 달렸어.
압록강에 캠프를 쳤지.

남, 북한 아이들이 어울렸어.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

통일이 되면...



방학이 되었어.

우리들은 배낭을 메었지.

비행기로 날았어.

제주도에 캠프를 쳤지.

남, 북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어.

정말 멋진 성이었어.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만났어.

이산가족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

서로 서로 꼬옥 껴안았어.

이 감동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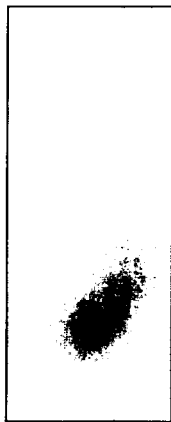
남, 북한 이산가족들은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꺼야.

통일이 되면...

외할아버지의 꿈

홍수현 / 대구도원중학교 1학년



그 날,
통일전망대에
소슬한 바람이 불고
한줌 재로 변한
외할아버지는
눈물처럼
그 곳에
뿌려지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러

눈부실게

임진강 바라보이는 잣플숲 사이에서

우리 어머니는

눈물도 마르셨다.

생전에

한 번 목놓아 부르고 싶으셨을

단 한번만이라도

부둥켜 안아보고 싶으셨을

북녘의 가족 이름을

외할아버지 대신 외쳐 부르며

날아가시라고

힐 힐 날아가시라고

살아서 는 못 념던

휴전선을 넘어서

그리운 가족 곁으로

혼이나마

힐 힐 날아가시라고.

절절한 아픔은

이제

땅에 묻히고

이제 그 기억 어렴풋할 뿐이니

언제

우리는

북녘과 하나되는

외할아버지의

꿈을 이룰까.

하나



정지민 / 달성중학교 2학년

지난 시간 우리
하나이면서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다른 생각, 다른 믿음
그리고
서로 다른 노래 부르면서

나뉘고,
싸우고,
죽고...
참담함 상처와 폐허
그리고 녹슨 철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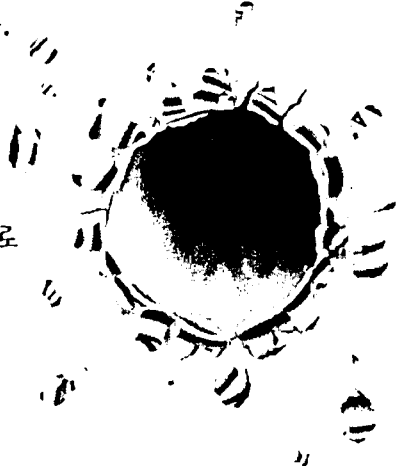
철조망은 점차 담이 되고
그 담 앞에서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들어있던 것처럼
걸들여졌다.

그러나 이대로 굳어버릴 수는 없다.
태초부터 같은 말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우리가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다.

꿈을 꾸다.
휴전선의 물창한 숲이
압록강으로 만주 벌판으로

그리고
제주도로 펼쳐지고
우리 겨레 모두가
산과 들,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오가며 뛰노는 꿈

서로의 가슴팍을 겨누던 총과
휴전선 철조망이
박물관 유리상자 속에 전시되고



애타던 기다림의 세월이 끝나
가슴 쓸어 내리는 안도의 한숨이
운 험하에 하나 가득 퍼지는 꿈
우리 겨레 하나가 될 아름다운 꿈을

할아버지의 담배

김은송 / 월배여자중학교 2학년

할아버지의 담배는
오늘도 타오른다.

뿌연 담배연기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시다

뿌연 담배연기...
그 속에는
동무와 곱밥을 까먹는,

열음보승이로 다투는,
할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뿌연 담배연기...
그 속에는
귀아픈 탱크소리와,
스디슨 울음소리와,
따가운 역사가
숨쉬고 있다.

외로운 북쪽땅아,
그리운 남쪽땅아...

서글픈 내 고향아,
보고픈 내 동무야...

보고싶소 외치시다
이내 뵈시는
스디슨 기침소리.

따가운 담배연기.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늘도

담배불을 붙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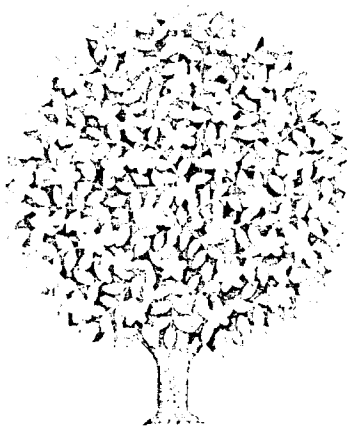
고목(古木)의 꿈

심은경 / 경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우리 정원의
백만 년 묵은 고목.

동기갑 다툼에
웃음조차 잊어버려
꽃 필 날 언제 오나
밤낮으로 애태우다

지성이면 감천
꽃봉오리 맺혔으니



고목(古木)의 꿈이
아주 허황된 건 아니었다.

아직은 글게
입다문 꽃봉오리,

조급한 마음에
바람으로 열려하면

꽃은 꽃이지만
이내 시들 꽃이 되니

꾸준한 관심으로
꽃 필 날을 좀더 기다리자.

별 잘 드는 어느 날에
꽃보오리 활짝 피고

정월 가득 웃음 소리
그칠 날 없을지니

머지 않아 그 꽃 가꿀
정원사 될 벗들이여!

꽃봉오리를 꽃으로 가꾸고
그 꽃을 열매로 길러내
다시 그 열매로 더 풍요로운
정원 만들 그 날 위해

우리 여기, 이 지식의 장에서
미래를 준비함이 어떠할가!

그대에게

박연진 / 영송여자고등학교 2학년

언제부턴가

그대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강이 하나 있소.

초여름이었던 그때에

여명의 붉은빛이 그대와 나를 현혹시켜

야만의 금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일꺼요.

그리 넓지 않은 강이지만

내 마음엔 바다와 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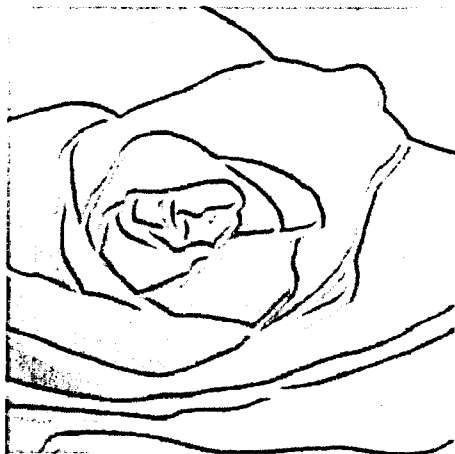
남들이 보기엔

티없이 맑은 유슈이건만

나는 알고 있소

밤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
강둑 푸른 잎사귀에 이슬되어
강으로 흘러든다는 것을

지금 강은
그대의 설움이 붉은꽃이 되어 피어있소.
그대 부디 울지마시오
내 그대 흰손잡지는 못하지만
나의 꿈속에서
흰 옷자락 날리며
그대와 나는 영원히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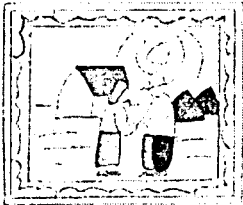
꿈의 기도

이 가 희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사랑 가득 품고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굳게 닫힌 그대 맘 화사히 열어젖히고
지나날의 우리 붉은 상처 모두
잊어버리고
푸른 산천의 검은 삼팔선 깨끗이
지워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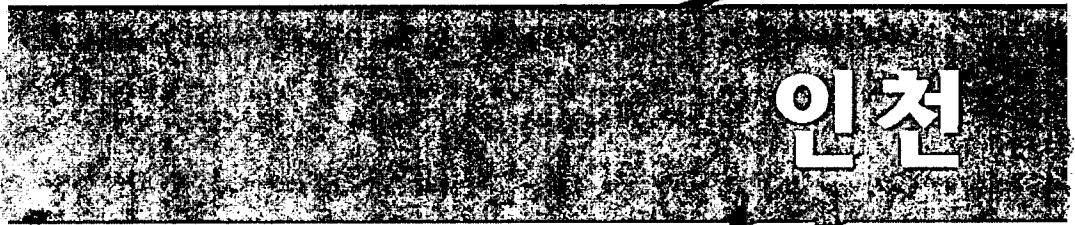
얼굴 한가득 웃음 머금고
여기에서 두 팔 힘껏 벌리고
나 그대만을 기다리며 잊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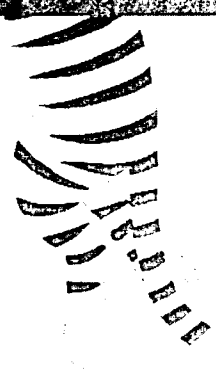
그대 얼굴에 진 어두운 그늘과
그대 마음에 핀 자욱한 양귀를
나의 이 따스한 햇살같은 미소로
모두 감사줄게요

우리 나누어 가졌던,
둘로 나뉘려 버렸었던,
꿈과 빛과 희망들을
이제 그대와 내가 하나로 합쳐보아요.

사랑 가득 품고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손 모아 하얀 꿈의 기도 물려요
평화와 함께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인천



고향이 오면

최 용 남 / 도립초등학교 5학년

할아버지의 고향은
머얼면 해주땅



소 오백마리
판문점 넘어 낫
가슴을
슬어내리시더니
금강호 배타고 금강산 가셨다.

50년 맏힌 한
소리높여 물엿으나

눈 앞에 두고도
가지 못 하는 고향
서러워 서러워
눈물만 쏟으셨다

지금
지치고 고달픈 몸
통일 희망에 싣고
경의선 바라보며
한숨 쉬신다

이제
경의선 타고
그 땅에 가면

슬픔과
앞따까움이
아닌
가족의 정나눔은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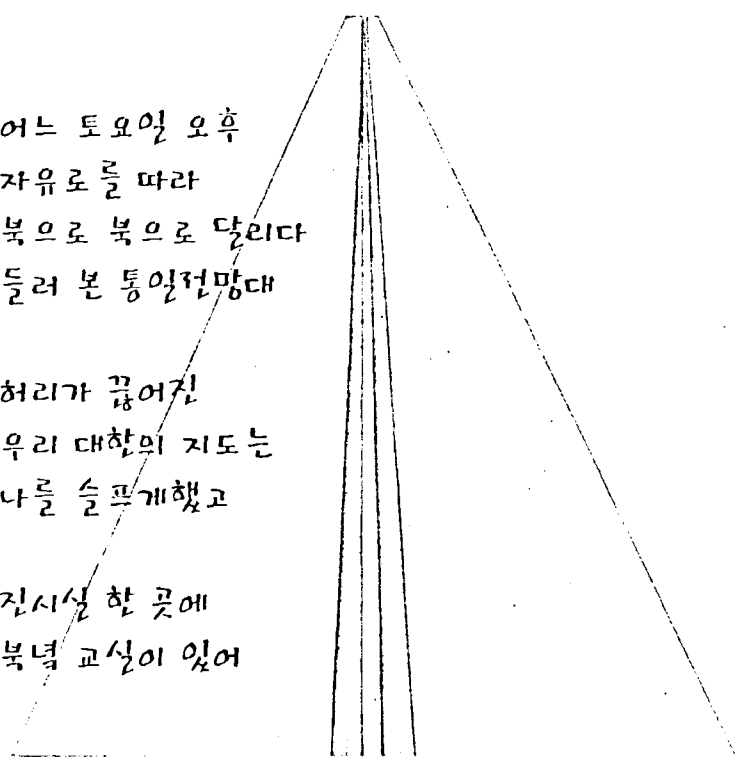
하나됨을 위하여

정 증 훈 / 부개서초등학교 3학년

어느 토요일 오후
자유로 를 따라
북으로 북으로 달리다
들러 본 통일전망대

허리가 끊어진
우리 대한의 지도는
나를 슬프게했고

진시실 한 곳에
북녘 교살이 있어



조용히 책상에 앉아
기도 드렸네.

끊어진 경의선이
하루 빨리 이어지고,
내가 모를 이념도
함께 무너져
북녘 친구들과
나란히 손잡고
맘껏 뛰놀 수 있기를.

TV에서 보았던
죽음진 이산 가족들의
슬프고도 가슴아픈 이야기가
머나 먼 전설이 되기를.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
국방 위원장 아저씨의 만남 속에
환한 통일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하나됨을 위한
나의 기도가
자유로울 따라 북녘까지
울려 퍼지기를.

어느 토요일 오후
통일전망대에서
나는 간절히
기도 드렸네.

하나됨을 위하여

김은 / 구산초등학교 4학년

우리는 깊이 잠들지 않고
그리움으로 50여년을 애타게
기다려 온
꿈을 감직한 꽃봉오리

꽃이 되기까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무던히도 참아왔구나

이제
한결음 한결음
조심스럽게 예쁜 꽃망울을
터트려 본다.

너무 활짝도
 어쩔프게 피는 것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지난 세월
 우리가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애절하고 감절한 마음만
 예쁘게 피어났으면 하고
 바랄뿐이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어느덧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한결음 한결음
 우리는 이렇게
 가슴으로 서로를
 알아주고
 다독거리 주는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



우리는 하나

오 제 석 / 계산중학교 2학년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듯이
무궁화와 진달래가
만나듯이

옛날의 비극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남북한의 가족이
서로 만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네.

태백산과 낭림산맥이

만나듯이

진돗개와 풍산개가

만나듯이

옛날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남북한의 기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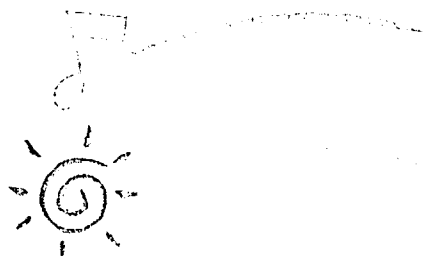
서로 합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이 되네.



밝은해와 둥근달이
만나듯이
설악산과 금강산이
만나듯이

옛날의 슬픔과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남북한의 정신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민족을
만들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민족이 되네.

하나됨을 위하여

최은영 / 박문여자중학교 3학년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서로의 생사가 궁금한데.

“살아생전 볼 수만 있다면.....”

이 말 한마디에

온 친구들의 눈시울을 적시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세요?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마니! 보고 싶었습네다!”
 “이보다 더 좋은날이 어딴을꼬?”
 서로 부등켜 앉은 모습에
 슽스함을 내 비추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열령 모두가 잊고 잊을지라도
 전 그때를 잊을수가 없어요.

나 비록
 작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느낄 수가 있는걸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수 없음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갈라짐과 헤어짐이
 우리 마음 하나하나에
 얼룩져 있다는 것을.

나 이제
친구들과 손맞잡고
어디든지
날아가겠어요!

눈물이 없는 곳을 향해.
그리고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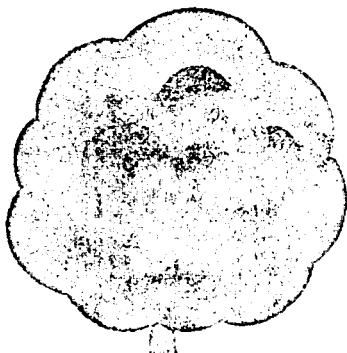
송지혜 / 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땅속 깊은 뿌리,
이 땅을 지탱해 온
시각은
하나입니다.

오랜세월에
싹이 돋고
깊이 뿌리 뻗어
수천년 역사의
나무가 되기 까지

삭튼 시작과
 이겨낸 시련과
 함께한 기쁨도
 하나였습니다.
 온갖 비바람을
 이겨내고
 하늘로
 곧게 뻗기까지
 우리는
 한 땀을 흘렸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높이 뻗기 위해서
 지금 비록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곳을
 향해있더라도



이제는
한 곳을 향해
발돋움할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내려
수천년 역사의
곧은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였음을,
우리가 하나임을...

형나됨을 위하여

고 두 연 / 인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임진강...

그곳에는 고향에 목마른 사람들이 산다.

몇발자국만 더 미끄러져 가면,

몇발자국만 더 미끄러져 가면 되는데...

차마 가지 못하고

낮선 북서풍에 날을대로 날은 목숨

서늘픈 북녘 하늘자락에 매달려 산다.

두고 온 산하에 진달래가 봄에 타오르고,

희디 희디 아카시아 수풀에 덮히면

또다시 고향이 그리워

강건너 샅넘어
 민족의 혈맥을 막은 철조망 가에
 힘없이 멈춰섰다.
 시리디 시리디 앞개로 고향에 굶주린
 허기를 채워가며
 지리밖에 텅텅 앓아 그리운 고향 소식 캐어본다.

산록은 북으로 이어져 끝이 없고,
 바다와 바다는 만나게 되어 있는데
 너와 나는
 둘로 나뉘어 있구나...
 바다보다 더 집합 핏줄이 있는 우리는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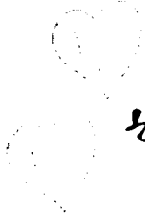
바라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내 샅하여!
 지구촌 어디든 맘음대로 갈 수 있는 세상에
 가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내 고향이여, 영원한 나의 소망이여,
 겨레여...

마음은 북녘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왜 늘 철조망 앞에서 멈춰서야만 하는가
 서로의 얼굴을 그리워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철조망이여
 이제 우리
 하나의 평화와 희망의 총탄이 되어
 철조망을 부수어 보자

휴전선에 주저앉아 있는 녹슨 철마는
 긴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이제는 철도 위를 힘차게 달리고 싶구나.
 그날이 오면
 우리의 형제들 모두 모이는 그날이 오면,
 광활한 웃음의 대지를 거닐어 보자
 따듯한 봄내음 나는 조국에서
 너와나 하나되는 그날...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과 한자락의
소망을 안고
평화를 위해 외친다.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길...
녹슨 철마가
먼 향수의 기적소리를 내며 달릴
그날이 오길
코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땅을 보며
조용히 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나됨을 위하여

이 정 복 / 학익여자고등학교 2학년

말이 약간 다르면 어때
살림살이가 좀 다르면 어때
통일을 하려는 마음만 같으면 되지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봐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던 날
전세계가 숨죽이고 보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던걸
포용하던 장면에선
가슴마저 뭉클해지네

봐! 마음만 맞으면
 못만날 사람도
 못할 일도 없잖아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기로 해

옆나라도 어려울 땐
 도와준 적 있는데
 우리 핏줄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면 뭐 어때
 우리 통일로 돌려받으면 되잖아
 평화통일 말이야

험험히 험험히
 서로가 마음을 열면서
 하나되는 연습을 하는거야
 그러면 두 갈래 물이 하나되어 만나듯
 우리도 자연스레 하나될 날 올거야
 바람도, 새도 오가는길
 맘껏 오갈수 있을거야

친구야!

그런날 오면

다시는 잡은 손 놓지 말기로 해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

김은경 / 부평여자고등학교 2학년

당신이 그리운 나는
호몰로 남겨진 채 떠도는 나룻배.
함없이 당신을 바라만 봅니다.

그러다 밤새기의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우리가 하나된 지상낙원을
꿈꿔 봅니다.

허나, 원망조차 할수 없는 세월로
아름다운 꿈은
안개 속에 사라져 갑니다.

그 꿈의 세상은
 그토록 감절할 바람이었기에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비무장지대는
 야속한
 태양별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을 바라만 보지 않겠습니다.

저기 저 북녘하늘을 향해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비록 메아리 없는 외침일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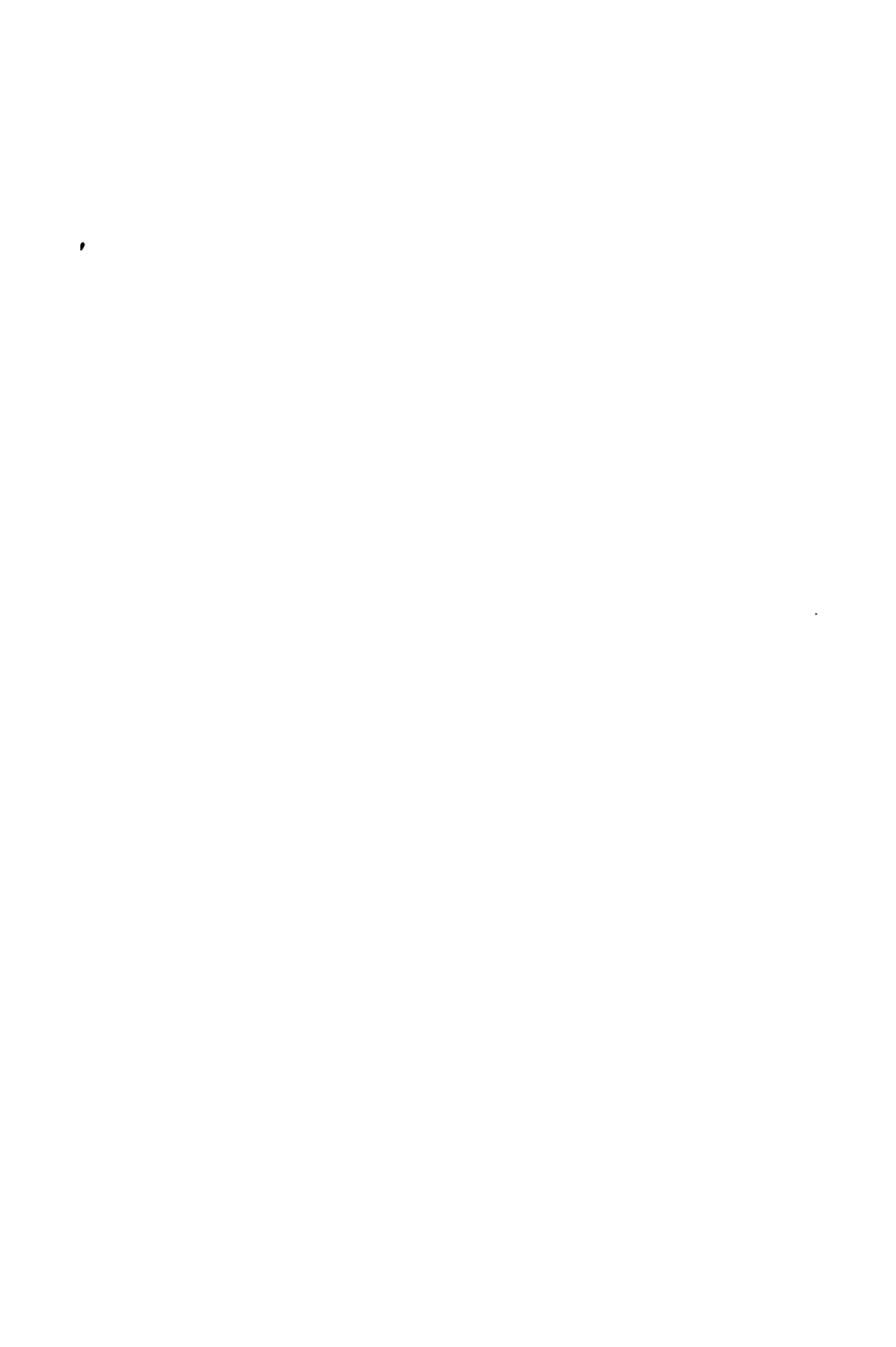
험남한 바위산에서
 보드라운 꽃봉오리 피어나는
 그날까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광주





통알이 코 앞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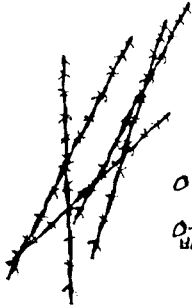
김은영 / 광주방림초등학교 5학년

통알이 코 앞인데
욕심이 가로막고

통알이 코 앞인데
이념이 가로막네

통알이 코 앞인데
세월이 앞을 막고

통알이 코 앞인데
휴전선 앞을 막네



아-저 휴전선만
없어진다면

기뻐하며 이산가족
상봉할텐데,
아-저 휴전선만
없어진다면

몇 십년 분단아픔
사라질텐데,

가까운 듯 멀고
먼 듯이 가까운

통일

아-통일은 언제
오려나?

미술 지우개

이 슬 / 광주우산초등학교 6학년

만일 지금 나에게
 뭐든지 지울수 있는
 미술 지우개가 있다면
 나는 38선을 지우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는
 가느다란 줄만 지우면
 남한과 북한은 틀림없이
 하나 될수 있을테니까요.

만일 지금 나에게
 뭐든지 지울수 있는

마술 지우개가 있다면
나는 미움을 지우고 싶어요.

마음 속에 자리잡은
미움만 지워버리면
남한과 북한은 분명히
가까워질 테니까요.

만일 지금 나에게
뭐든지 지울 수 있는
마술 지우개가 있다면
나는 미움을 바꾸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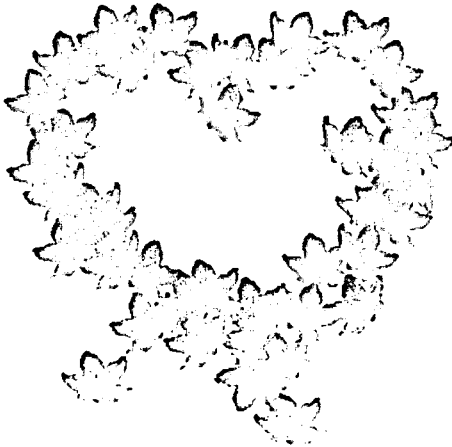
미국이 맘을 돌려
우리를 도와 준다면,
남한과 북한은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지금 나에게
뭐든지 지울 수 있는

마술 지우개가 있다면
나는 의심을 지우고 싶어요.

남과 북 사이에
의심이 없어진다면
남한과 북한은 틀림없이
사랑할 수 있을테니까요.

만일 지금 나에게
마술 지우개가 있다면...



영원

정 태 원 / 광주양산초등학교 6학년

기약 없는 이별
흔-적
흔-러가버린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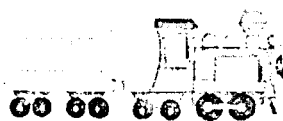
귀여운 소년
할아버지 되도록
부모 그리워하던
50년...

그 길 길 세월
50년.
그 누가 보상해주리.

그 깊은 응어리
언제쯤
풀 수 있을까.

'소망' 실은
경의선
힘차게 달려다오.

아, 아! 통일이여!!
남·북한 모든 가족
한 마음으로
염원하네.



민들레 꽃씨처럼

이혜민 / 광주충장중학교 3학년

유월이 되면
문통 하이얏게 날아오르는
민들레 꽃씨.

하이얏 낙하산
어깨에 메고
문하늘 가득
둥-둥 떠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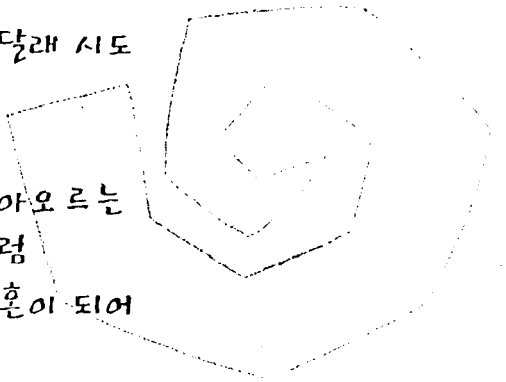
합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나라
문하늘 가득
둥-둥 떠다닌다.

한라산 노오란 유채꽃 향기
 함뿍 적시고
 경주 신라천년의 정취도
 더듬어 보고
 문통 하이양게 날아오르는
 민들레 꽃씨들 처럼

애달픈 마음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하늘로 하늘로 시름시름 솟아오른다.

개성 인삼 골든심지
 깊이 되새겨 보고
 영변의 약산에 짐달래 시도
 한수 읊어보고

문통 하이양게 날아오르는
 민들레 꽃씨들 처럼
 가벼운 자유의 영혼이 되어
 고향을 찾아
 잃어버린 시냇물을 찾아



은하늘 가득
둥-둥 떠다닌다.

이 마음만
하이얀 민들레 꽃씨에게
맞기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나라 은하늘 가득
둥-둥 떠다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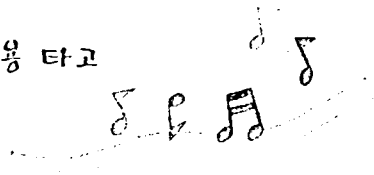
이제 나도 마음까지
이 몸에 실고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이얀 낙하산 어깨에 메고
은하늘 가득
둥-둥 떠간다.

너도 나도 통일외 증표가 되자

김보영 / 치평중학교 3학년

이따금 낯
네 생각을 하지
우리 가슴을 가로지르는
두터운 철조망 하나

모두들 내일이면
이제 걸어들었다고 하지
그러면 우리 함께
그때 고속버스 자가용 타고
백두산엘 오르자



두 손을 마주 잡고
 한 마리 나비처럼 날아오르자
 친구야

오늘은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매어
 보낸다 이 내 마음을 실어
 평화의 노래를 부르자
 나라 크고 즐거운 노래

김정일 국방 위원장 · 김대중 대통령
 '우리 하나가 되자'고 손목잡던 날이
 바로 엊그레만 같은데 버연써 1년

친구야, 약속대로 우리 하나되자
 평화대에 살고 있는 풍산개 한 쌍이
 다섯 마리의 새끼 낳듯
 너와 나도 통일의 증표가 되자

노란 꽃바람과
 분홍빛 머금은 이슬이 만나면

크나큰 무지개를 그려내듯

다시 하나 되는 느낌을

우리들 머리맡에

고파심 한 삼처럼 놓아두자.

서로 오갈 수 있게

늪은 어미와 아들

정민 / 광주원계중학교 1학년

우리 헤어진지 50년
은빛이슬 세월따라 흐르고

늪은 어미의 눈가에 얼룩이 지고
아직도 핏덩이같은
아들을 뒤로 하고
아들버린 죄지은 아버지는
작은 사진 속 주인공 되어 보고있구나

세월이 흘렀구나 작은 실감속
생살 짙긴 아픔으로
다시 아들을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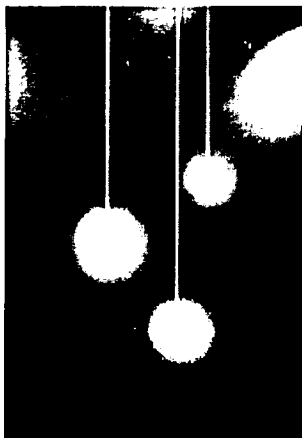
기약없는 이별 속
 '어머니 또 올게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물부짓음으로 보낸 아들이
 못내 그리워 또 울었것마는

통일을 위해...
 재회를 위해...

은빛 이슬을 닦아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 하나로

눈은 어머니는,
 눈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물 감았다.



슬픈 진실과의 이별

장은지 / 송덕고등학교 2학년

빛줄기 하나 스며들지 않았던
한반도의 어제와
스쳐가는 바람마저 외면했던
메마른 대지위의 소라린 진실이
이제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
남은 이들의 가슴을
피로 얼룩진 눈물로 메우게 한다.

그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푸른 반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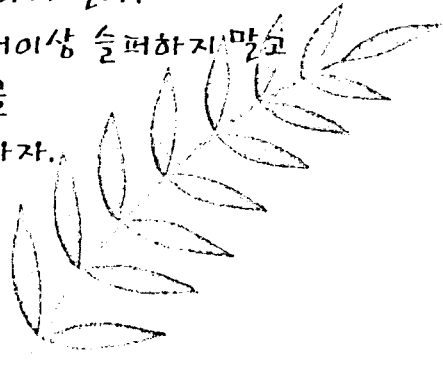
검은 그림자 드리우게 했던 이
 짧은 역사 한편에
 지우지 못할 티를 남긴 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통일이란 이름으로 짓밟았던 이
 누구였는가
 처음부터 그 누구란 없었다.
 아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쪽 눈을 감은 채
 한쪽 귀를 막은 채
 한쪽 가슴으로 보고 들었을 뿐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기 싫었을 뿐
 허나 너무 많이 지나쳐와버렸다.

붉은 집달래의 이도를 받아
 희망의 비행기가
 북녘땅에 다가갈 때
 들끓는 피를 이기지 못해
 이내 넘쳐버리는 그것을 보았다

이제는 주워담기에 너무 늦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지나간 과거는 돌릴수 없고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뒤에 썩쓸찬 후회만이 남는것을...

힘든 날들 모두 지나감에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시간들
새로운 6월이 왔음에도
어색한 웃음을 지을수 밖에 없는 오늘
하지만 우리 아팠던 6월만큼은 잊자
앞으로 수세기 함께할 날들을
더 이상 눈물로 기억하지 말자.
분단이란 이름아래 더이상 슬퍼하지 말고
다가올 희망의 날들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자.



위대한 씨앗의 힘

장 일 령 / 송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그들이 뭉켜질 총부리가 싫소이다
 내 앞에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목마른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화해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오.

빠알갓 열매 가득
 파아란 열매 가득 채워
 배달민족의 머리 위에
 무궁화의 영광을 드리게 하겠소.

우리가 뭉켜질 폐심(閉心)이 싫소이다
 목마른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이해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오.

하이얀 열매 가득
 까아맷 열매 가득 채워
 백의민족의 가슴 위에
 집달래의 영광을 드리게 하겠소.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열매의 씨앗에
 무궁화 · 집달래 앞에 섰었하노니
 한민족 · 한핏줄의 아리랑을 외쳤소
 이다.
 힘차게 외쳤소이다.

그들이 버린 매섭던 총부리는
 내 앞에서 점점...사라지고
 우리도 차가운 폐심을 버렸소이다.

6·15의 영광스러운 씨앗은 열매가 되어
 머지않아 태극의 형상을 그릴것이되다
 믿소, 나는 믿소.
 아리랑의 위대한 힘을
 씨앗의 위대한 힘을...

너를 만나면...

이 인 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너를 만나면
내 너를 만나면
가슴속에 북받쳐 흐르는
감동의 눈물을 터뜨리리라.

너를 만나면
내 너를 만나면
거칠고 소나무 같은
너의 손을 어루만져 주리라.

너를 만나면

내 너를 만나면
너를 열싸얏고 덩실덩실
춤을 추리라.

너를 만나면
내 너를 만나면
가슴에 알알이 맏혔던
붉은 핏물 털어 버리고
너를 뜨겁게 안으리라...

너를 만나면
내 너를 만나면
네게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세상을 보여주리라.

너를 만나면
내 너를 만나면
너와 내가 겪어야 했던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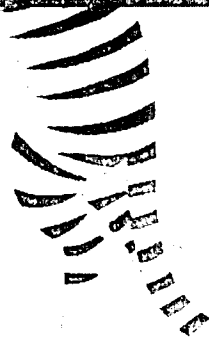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를
기도 하리라.

나는 너를 만나면
너의 영원한 벗이 되리라.





대전



큰 민족 한 민족

김요섭 / 대전중촌초등학교 6학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움텃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달군의 큰 이념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역사
깨끗하여라 백의 민족
고요하여라 아침의 나라

이제 하나 되어라
둘된 서러움
그리운 눈물도 이제 사라져라

그만 아파 해도 될 리 세기
 이제 희망 품을 새 시대
 대륙을 호령하는 호랑이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의 피맺힌 과거 씻어주고

래지나 칭칭

신명나게

어깨춤 출 그 날

목이 쉬어도 좋을 그 날

어깨가 아파도 행복할 그 날



은 세상 축하의 박수 보내고

기쁨의 눈물 흘리겠지

땅도 하늘도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단군의 큰 울림

세상을 굽이칠 통일 그 날

민들레 꽃씨처럼

이 아 름 / 대전내동초등학교 4학년

파아란 하늘 아래
봄바람 사랑 타고
철조망도 넘어가는
민들레 꽃씨
어쩌면 가다가
가시밭에 걸릴라
어쩌면 가다가
도랑물에 잠길라

조마조마 두 손 모아
마음 줄여도
희망 노래 부르며

날아가는 은빛 날개

아직도 쌀쌀한
북녘 어느 외딴 땅엔
따스운 봄바람을
살어다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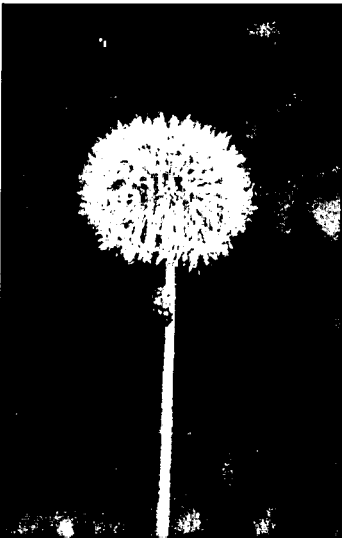
아직도 메마른
북녘 어느 어둔 땅에
향긋한 봄꽃 소식
전해다 주자

언땅에 작은 몸이라
모두 고개 쳐어도
작은 뿌리를 내려서
수만의 체온들로 녹이자

얼어붙은 북녘 땅도
꽃동산 되리
웅크렸던 아이들이
뛰어 다니리

밧들레 꽃씨야
 힘들 내어라
 야속한 꽃샘 바람
 휘몰아쳐도

지쳐 앓았다가도
 다시 일어나
 고운 꽃망울 터트리
 꿈 꾸며 가라



동포 향한 우리 마음
 꽃씨 되어 날아간다.
 통일 향한 우리 정성
 꿈을 안고 퍼져간다.

통일의 하모니

김혜선 / 대전오류초등학교 3학년



쪽빛 하늘을 바라보면
새털구름 뭉게구름 갈라 서 있네
모양은 하나인데
왜 남북으로 갈라야 하나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
할미꽃 진달래 꽃 갈라 서 있네
향기는 하나인데
왜 남북으로 갈라야 하나

밤하늘을 바라보면
 큰곰자리 천사자리 갈라 서 있네
 별빛은 하나인데
 왜 남북으로 갈라야 하나

피어오르는 햇님을 바라보면
 태극기 인공기 갈라 서 있네
 민족은 하나인데
 왜 남북으로 갈라야 하나

방아쪼는 달님을 바라보면
 부모 형제 갈라 서 있네
 핏줄은 하나인데
 왜 남북으로 갈라야 하나

그러나 오늘 이 시각
 가슴 아픈 이산가족
 진한 한 민족의 흐느낌
 민족은 하나
 하얀 손수건을 적시며

한라산 백록담과
백두산 천지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리 높여 부릅니다.

통일의 노래

신 다혜 / 대전월평중학교 2학년

언제쯤이면
그 눈물 몇을까?
50년을 흘러도
마르지 않는 강물되어
가슴만 적시던
그리움의 눈물, 눈물들.

언제쯤이면
잘린 허리 이어질까?
반세기가 지나도록
겨레를 두 동강낸 채

가슴 태우던
보고픈 내 감상, 감상들.

그러나
그 날, 새 천년 유월 보름
은 거레가 울었다.
살하도 용솟음쳤다.
온 세계도 숨을 죽였다.

오래 미움도 잊은 채
맛잡은 두 손을 놓지 못하고
열사악은 가슴 떨어질 줄 모르던
그 날의 그 감격
그 날의 그 가슴 떨림.

경의선이 연결된다.
국토가 하나된다.
핏줄이 이어진다.

그리던 고향 찾아가자.
 보고 싶은 부모 형제 만나보자.
 열사양고 함께 뛰어보자.

겨레의 소망이 싹튼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난다.
 통일의 노래가 산하를 덮는다.
 민족의 합창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진다.



동토에 내리는 햇살

황은하 / 대전중앙중학교 2학년

고희를 훌쩍 넘긴
한 노인이
평양땅을 밟는 순간,
열어붙은 50년의 마음을
눈녹듯 녹여 눈물을 만들었다.
승냥이 이리떼
머리에 뿔 달린
북한의 동포들이
그날 내게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지로
다가왔다.

이산가족이 아니라도
 전쟁을 치른 세대가 아니라도
 흥분되고 감격스러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꽃을 피웠다.



나그네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는 건
 매서운 폭풍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라며,
 때리는 주먹보다 강한 것
 스다듬는 손바닥이라며
 동네 어르신들 텃밭집에 모여
 낱새는 줄 몰랐다.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미움과 질시를 버리고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맞아
 이제 한민족 한겨레로 다시 일어나
 세계 속에 우뚝 선 그 날을...

진달래꽃 필 적에

김 성 태 / 보문중학교 3학년

불은 웅담 진달래
한반도 산하(山河)
슬픔

찬 바람 지나가고
분단의 슬픔
맺힌 봉오리

피고 진 시간 속
지고 핀 세월 속
더해가는 그리움

여울여울 핀
연분홍 진달래
붉은 한 (恨)

토해낸
고통의 피
흠어진 설움
검붉은 짙은 향기

어제도 오늘도
눈시울 붉히는
민족애의 꽃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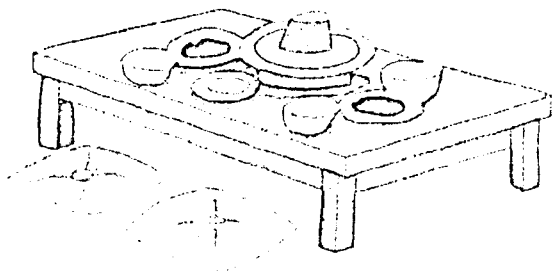
백발의母子, 그 짧은 만남

백상숙 / 충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북녘의 아들,
흰이 녀은 아들의 흰 머리
차마 못보고
남녘의 눈먼 어머니는
지나버린 시간 속에 묻혀진
여섯 살 어린 아이를 찾는다.

어머니!
고향 땅 맨발로 헤매며
그리도 애타게 부르던
꿈결같은 이름이건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세월의 스라린
 아픔을 삼키며
 백발의 아들은
 깨억깨억
 서럽게도 눈물 짓누나.
 김나는 밥 한 술
 당신 손으로 먹이지 못하고
 떠나 보내야 하는데



오십 년 세월보다 더 서러운
 기억 없는 이별의 날
 떠나가는 버스

그 차갑기만 할 빈 자리
붙잡으려 손뻗어도
달려버린 차창을 타고 흐르는
눈먼 백발노모의 눈물 자국뿐.

앞 못보는 어미의
눈물 위에 피어나
할미꽃 한 송이
허망한 길 위에 피어
또 다른 만남의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네.

역사의 진리 위에 통일의 다리를 놓자

이 윤 학 / 유성고등학교 3학년

이 어제도 알픈 우리의 역사인가
 한 몸애 어제와 오늘을 상처로
 앓고 살아온 반평생의 아픔
 배반의 눈물로 열룩진 산하
 강물은 역류해 강폭은 잠대함데
 물빛만 맑은 햇살로 운기를 띠고
 북녘 우리 땅이 가고파서
 목놓아 외쳐 보아도
 온몸애 등뺨 젖은 그리움
 애타게 기다려 보아도
 흠어진 피뼀이가 보고파서

얼룩진 가슴속 자리 매김
 공허한 침묵만이 흐를 뿐
 아무 대답 없는 너의 모습.

드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의 광활함만이
 언제나 오늘을 함께 하면서
 사랑과 평화만을 찾겠다고
 굳게 맹세하던 때가
 었그제 그제 이거늘
 분단된 조국의 산하
 쏟아지던 이념의 소낙비도
 지나가면 그만이요
 거세게 몰아치던 파도도
 흘러가면 그만인 것을
 너는 어이 대답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느냐

서쪽을 바라보면 서해 바다가
 북쪽의 하늘을 물려다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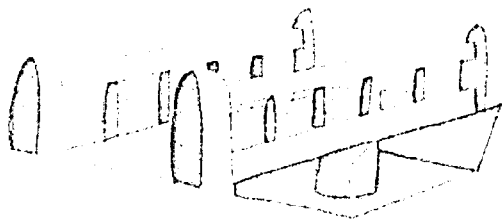
아픈 현실, 슬픈 과거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한 장면 한 장면들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을 넘나들며 회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하던 세월
 내 마음 솔직히 담은
 손길 내밀어 보아도
 눈길조차 아니 보내고
 항상 시린 시선으로
 어두운 그늘 찾아
 그림자만 비치우는
 모습이 애석 하도다.

기나 긴 한 평생
 아침햇살 위에 비친
 철책년의 싸늘한 감장
 분단 이전의 평화로웠던
 너의 옛 모습 그리며
 이 세상 끝까지
 그리움에 목 타는

이들의 물분과
 너의 거친 숨결에 놀라
 눈시울 붉어진
 우리 사천만의 통한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에
 겪었던 슬모 없는 긴장도
 만날 때마다 시작했던
 승상 없는 그 다툼도
 이제는 부끄러운 옛 이야기로
 과거의 쓰레기 밖에 물어버리고
 우리의 애통한 비련의 사연을
 가슴 깊은 숲 속에 품고 살아온
 지난날의 꿈 다시
 고맙게 색칠해가며
 함 핏줄 하나로 이어가는
 미래를 내일의 하늘 위에
 통일은 미래 역사의 길리다
 오천년 역사의 길리 위에다

통일의 튼튼한 다리를 놓자
반 백년 회한의 험준한 절벽을
베르린 장벽처럼 헐어버리고
역사 속에 헐년다리를 놓아야 한다
어서 오라, 통일된 우리의 조국이며.



이산 상봉

남궁현 / 동신고등학교 2학년

오십년 세월의 향이 풀어지던 날
어디 하루, 이틀이
그 세월 다 이기겠냐마는

두 손잡고 절규하듯 물어대는
늪은 늪이
지난 삶을 다 토해내려나 보다.

영변 진달래 마냥 붉던 입술
대동강 모래 마냥 하얗던 손
이젠 세월에 묻데 갠데 없지마는



어디 변할 것이 그 뿐이라

조국의 허리 잘리듯 갈라져 버린 우리 마음들

누이는 달래보려

사흘 밤, 낮을 분다.

하루, 이틀이 오십 해를 어찌 하랴 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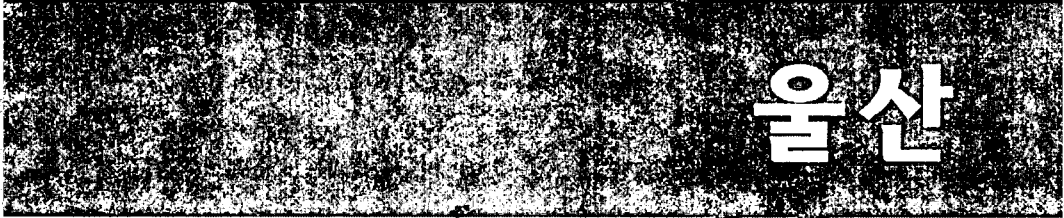
물며 잡은 누이 손에

온 국민의 하나같은 영원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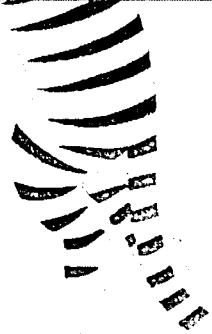
돌아가는 누이도

동생 손잡고 약산 집달래 따던

그 시절을 꿈꿔본다



울산



통일을 바라는 마음

박현규 / 미포초등학교 4학년

손이 말해요
어서 빨리 통일되어
북녘 친구들과
공기하며 놀자고

발이 말해요
북한의 친구들과
발야구 하며
실나게 뛰어 놀자고

입이 말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함께
노래하자고

눈이 말해요
백두산도 함께 보고
한라산도 같이 보자고

코가 말해요
우리나라 맑은 공기
함께 마시자고

가슴이 말해요
“친구야 사랑해”
우리는 한민족



모두모두 말해요
어서 빨리 통일되어
남북한 어린이 모두
같이 놀자고

친구야

송은별 / 대현초등학교 3학년

친구야.

사회 시간

우리 마을을 배우며

경치가 아름다운 금강산

네가 사는 마을에 가고 싶었어.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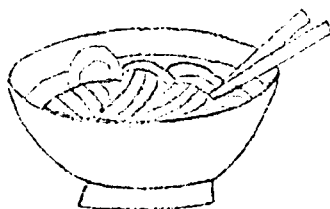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 모두

함흥냉면, 평양냉면 먹으며

함흥에서 평양에서

진짜 냉면을 먹고 싶었어.



친구야
 행복 시간
 친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하며
 너랑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도했어.

친구야.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널 그곳에서
 난 이곳에서
 많은 일 열심히 하며
 기다리자구나.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

권 예 진 / 명덕초등학교 4학년

이산 가족 상봉하는 날
모두들 긴장감이 돌고
가슴은 콩닥콩닥 방아를 찧네.

처음 봤을 때
두 눈이 반짝하고
마주칠 때면

서로 껴안고
기뻐 울고 슬퍼 울고
물음 바다가 되지요.

울다가 울다가
저녁식사 시간 되면
서로의 사랑을 먹여 주지요.

“어머니, 잡수세요.”
“아니다. 너부터 먹어라.”
하며 오순도순 먹고 난 뒤,

잘 시간이 되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라.” 할 뒤,

안 떨어지는 발걸음
무겁게 옮기고 가길 했지만
어머니 생각이 나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이 되자
열린 어머니께 달려가서
아침 인사를 하지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도 잘 잤니?”

하고
 마지막 날
 이제는 헤어질 시간
 서로 껴앉고 가지 말라고 하지말

어쩔 수 없이
 철 덩어리 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지요.

“어머니 오래 오래 사세요.”

“아들아, 건강해라.”

통일의 그날까지 약속하지요.



두 형제

임수연 / 언양여자중학교 3학년.

그토록 기나긴 세월동안
붉게 흠날리던 피바람이 지나가더니만,
이제 이토록 거친 가시덤쿨만이
한 몸 같던 두 형제를 이리 갈라 놓았는가

결코 쉽게 치유할 수 없을 상처
날카로운 넝쿨에 같같이 찢기어진
그 어머니의 애탄 마음은 어이하고
이리도 쉽게 두 형제는 서로를 잊어막 가는가

가득 상처입고 목 메여하는 늙은 어머니

부서진 가슴 아래 고이 잠든 작은 꽃씨도,
 그 어느 누구의 기억에도 자리잡지 못한 채
 이리 두 형제의 기억 너머로 잠들어 버리는가

이제야 오랜 세월 끝에 잠들었던 꽃씨도
 지난날의 하이양던 꽃송이로 화하여,
 이토록 아롱히 어머니의 가슴을 물들이는 건만
 무슨 연유로 이리도 두 형제는 만남을 머뭇거리는가
 지난날의 그 날카롭던 가시덤쿨도
 이제는 하나같이 샅샅히 부서져 내리어,
 이토록 따스히 어머니의 가슴을 치유하건만
 무슨 연유로 이리도 두 형제는 만남을 머뭇거리는가

짧은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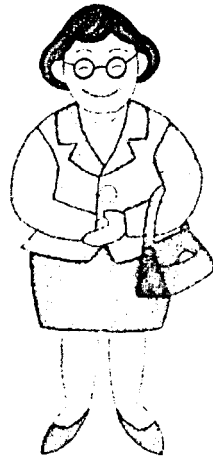
박민희 / 태화여자중학교 2학년

잊지 못할 이와 만나고
그리워 마지 못할 이와 만났으니

끊어진 핏줄은 이어져
심장을 향해 피가 돈다.

50년 간 마르지 않던
슬픔의 빗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널 향해 뚫는다



탱탱한 피부가 주름지고
 흑단 같은 머리칼에 눈송이가 앉았지만

너의 그 웃음만은 변하지 않아서
 마주 웃어주고 있구나

누이야

함께 웃을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헤어지자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리
 함께 웃을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만은 헤어지자

이산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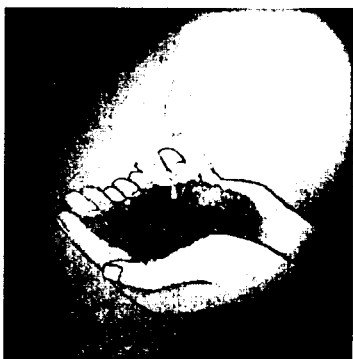
박 예 정 / 무룡중학교 3학년

50여년 세월은
곱던 어머니 얼굴에 검버섯을 피우고
어린 아들 머리에 흰머리로 남았다

세월에 묻혀 빛바랜 사진속엔
고향이 있고, 친구가 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 저 밑바닥부터 들끓어 오르는
애달픈 세월들,
아팠던 시간들

땅바닥이든 어떠랴
 몇천만번이라도 걸하고 싶은 마음
 닳아없어져도 아쉬움 없을 만큼
 서럽게, 서럽게, 감사받은 손

차창에 맞대인 것이 어디 손뿐인가
 심연에서 흘러넘쳐 데일 듯이
 안타까운 이별이
 넘쿨줄기 되어 38선을 넘으면
 새잎나고 꽃피때마다
 핏줄에 새로운 온기로 남으리라



홍청산

강 설 지 / 울산화봉공업고등학교 1학년

언제, 어느 곳에
홍청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음들...
내 왜 충청이냐고 물었거늘...

그 산의 북쪽은 가을이 되면
유낙히도 붉게 물든다하여
북쪽은 홍,

그 산의 남쪽 산기슭에는
하늘보다 깊고 푸른 바다가 있었음들
이를 알려 청이라 칭하여
홍청이 되었다고

하늘이 노하여 별을 내릴 적에
 하늘에 천둥이 떨어지고
 핏비가 내리며
 재앙이 내렸거늘...

홍형산에 물타리가 생겨
 홍형에는 꽃도 아니피다하고
 나비들도 드나들지 못하였거늘...
 나비들도 슬퍼하였노라

홍형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졌노라
 북쪽 홍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남쪽 형은 시퍼렇게 멍들었음을
 서로 병들고 옛 모습을 잃어갔노라

비 개인 어느 햇빛 맑고 푸른 날
 하얀나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밧들레 꽃씨를 옮겨 전하였노라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왔노라
기쁨 가득 찬 민들레 활짝 피었거늘...
북쪽에도... 남쪽에도...

민들레 울타리를 뚫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번져나가니
홍침삼은 다시 하나가 되었노라

둘을 갈라놓았던 울타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였음을
왜 깨닫지 못한 일이었을까...

소망

이 상 훈 / 울산제일고등학교 3학년

눈물 어린 광복 속에 부여받은 새생명
 그것조차도 불완전한 것이어서 가슴속에
 큰 멍에를 남겨야 했다.

이렇게 애타게 보고 싶으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 무엇이든 가름이 있어
 엄연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너와 나는
 길고도 짧은 어떤 사연이 있어
 언제나 슬픔에 젖어 있느냐?

무엇이 그토록 안타까웠기에
 둘이라 불리우는 우리는
 깊은 열레임에 비틀거리면서
 하나 되야 한다는 소망을 노래했느냐?
 평년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헤어짐이 아니라 그리움인가 보다

친구여...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고
 가지 못할 길이 있네
 그러나 삶이나 들도 어디나 길이 있듯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닿길 길도 있을 것이네

친구여...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홀로 하늘을 보면
 넓다란 하늘은 사라지고
 민족의 얼굴만 남아 눈 속에 그리움으로 가득차네



친구여...
 잊지 말아다오
 강물마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 어느 때고 만날 날을 기다
 리는 나의 마음을...
 그 소망을 감절히 기도하는
 내가 잊음을...

통일 전망대

박성진 / 울산상업고등학교 3학년

구름은 소리없이 지나가고,
바다는 하루종일 잔잔하고,
하늘에는 갈매기가 물어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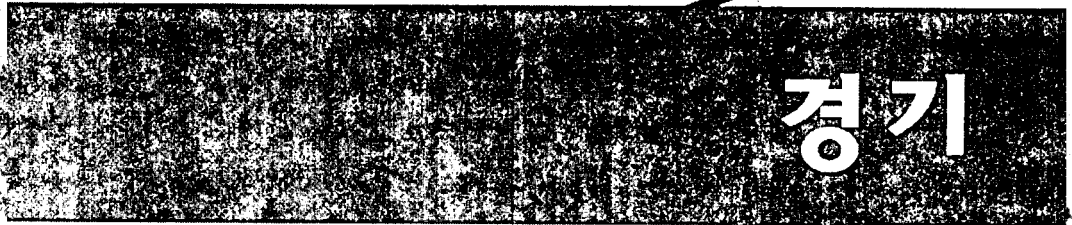


동물조차 없는 산 속에는
불에 탄 나무들뿐
햇살에 겨워 아지랑이만 일어나네.

산허리 어디쯤,
아직도 풀지 못한 길게 늘인 철사슬

어느 곳을 보아도
보이는 곳은 산과 바다뿐,
누구를 불러보아도
들리는 목소리는 메아리뿐

술술하고 외로운 이 곳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 날이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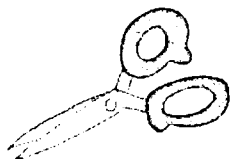


경기



가위와 꽃

김 지 은 / 이충초등학교 5학년



가위야-! 가위야-!
 내 색종이만 자르지 말고
 남과 북을 가로막은
 철조망을 잘라주렴.

가위야-! 가위야-!
 내 검은 도화지만 자르지 말고
 끔찍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검은 마음을 잘라주렴.



플아-! 플아-!
내 색종이만 붙이지 말고
남과 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을 붙여주렴.

플아-! 플아-!
내 도화지만 붙이지 말고
헤어짐 이산가족에
가슴 찢어진
우리 할머니의
마음도 붙여주렴.

가위야-! 플아-!
남과 북이
함마음처럼 통일이 되어
함 이웃처럼 함께
즐겁게 지내길
기도해 주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창희 / 여흥초등학교 4학년

하아악 뭉게구름
 남으로 오듯
 파란 새 지저귀며
 북으로 날듯,

너와 나
 같이 만나
 인사 나누며
 하하하 웃음짓는
 친구되겠지.



노오랗 은행잎에
마음을 적어
우표도 안 붙이고
보내는 편지.

너와 나
같이 만나
친구되어서
작은 어깨 나란히
걸고 싶단다.

해마다 그려내는
묵이오 그림
내년에도 나는 또
그려야 할까?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파아란 꿈들만을
그리고 싶어.

친구야 푸른 하늘
우러러 보자.
너의 미소 나의 웃음
해맑으니까

꽃같은
너와 내가
함께 세워갈
자랑스런 그 이름
아! 대한민국.

통일의 노래

지 새 봄 / 수리초등학교 6학년

평양거리에 뭉툭당당
통일의 전령사
대통령 무뚝 서시던 날
50년 깊었던

얼굴 주름주름 사이로
닫혔던 문이 열리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마니! 아버지!
50년 이별



잊어버린 얼굴
 목을 숙음 배던 긴 사슴행렬
 서울거리 태극기 넘치던 날
 만남의 함성 설움의 눈물
 바다되어
 금강산 길이 열렸습니다.

남이줄 알고 되돌아보니
 내형제 내핍줄
 단군자손
 햇볕정채 양지 뜰에
 해님바람 불던 날
 통일의 꽃 열매 열렸습니다.

금강호 봉래호
바다길 하늘길 열려
금강산 가는길
백두산 가는길

이제 미워하던 마음 잊고
우리 새천년 새롭게 손잡고
통일의 노래
참성으로 모아져
새천년 세계중심
한민족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나의 기도



방혜진 / 여주여자중학교 2학년

같은 지붕아래 분열된 나라의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눈물과 설움이 흐르지 못하는 저 어둠의 장벽을.
화해와 웃음이 넘치지 못하는 저 높은 장벽을.
그늘을 드리운 저 설움의 장벽을.
본 국민의 눈물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 잔인한 장벽을.
이젠 허물어지게 해주소서.

우리 발목을 묶어 두었던 한 가닥 선이
우리의 희망이 흐를 수 있는 길이 되게 해주소서.

아니 되시겠다면...

녹슨 철로 저 끝에 들꽃 한 포기 되게 해 주소서.
장벽 넘어 저 땅을 자유로이 바라 볼 수 있도록.

같은 지붕아래 분열된 나라의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철조망 저편에 형제와 손 한 번 맞잡도록.
미소 지은 얼굴 한번 마주 하도록.
두 손 꼭 잡고 길을 거닐 수 있도록.
저 땅에서 오르는 해를 바라 볼 수 있도록.
진정한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게 해주소서.

우리가슴의 꽃 시들게 했던 한 가닥의 연이
우리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빗줄기가 되게 해 주소서.
이도 아니 되시겠다면...
흐르는 강 한 줄기가 되게 해 주소서.
장벽 넘어 건너 땅의 흙 한번 만져보도록.

집은 새벽 안개 걸쳐 붉은 해가 떠오를 때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벽

박 성 희 / 용인중학교 3학년

다시 서는 이 자리
 군모 속의 밧들레에도
 저기 저 달리는 사슴의 뿔에도
 50년 전 설움이 서려있다.
 응어리가 남아있다.

따스한 봄빛 아래,
 너, 나 앉고 춤을 추던
 덩실덩실 춤을 추던
 우리 누이 어디 갔나

새하얀 모시 적삼
 피에 물 들고
 땅위에 나뒹굴며
 벽이 하나 들어섰다.

피로 맷집 한
 사무치는 그리움
 느끼고픈 숨결 하나하나가
 응어리로 쥐어진다
 피고름이 된다

내 누이, 내 동생
 눈, 코, 입 그대로 변함 게 없는데
 벽 하나 들어서
 눈물 지며 돌아왔다

금수강산 뒤로하고
 산새 들새 앞에 두고
 총, 칼을 들이대던
 그 날의 우리

화려한 무궁화 동산에서
다시 한번
플 내음과 어우러져
열싸얏고 즐기는 건 어떠할런지



새가 된다면

김 현 식 / 부친여월중학교 2학년

새가 된다면, 새가 된다면
그 날개로 맘껏 날 수 있다면
원이 없어라.원이 없어라

휴전 뒤 어연 반세기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반도는 끔찍고
눈앞이 고향이건만 가지를 못한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새다. 새가 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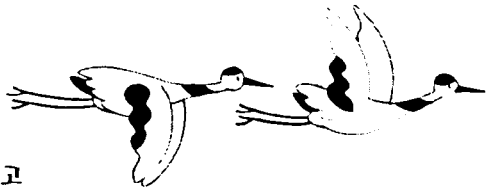
저 새는 분단의 현실을 모르는 것까.
 새가, 새가 된다면
 그 찬란한 날개로 혈조망 위를 지나
 그리운 북녘땅에 도착할 텐데

내가 새가 된다면
 부러울 것이 없으리. 소원이 없으리.
 많은 소망을 품고
 북녘으로 날아가
 이산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맘껏 놀텐데

그들이, 이산가족들이 새가 된다면
 부러울 것이 없으리. 소원이 없으리
 많은 기대를 품고
 북녘으로 날아가 고향집에 등지틀고
 헤어진 혈육의 얼굴을 맘껏 볼텐데

그들이, 전쟁도중 숨진 이의 가족들이 새가 된다면
 부러울 것이 없으리, 소원이 없으리

많은 기대를 품고
 하늘로 날아가
 그들의 영혼을 보고
 잘가시랴 말이라도 남겨둘 텐데



우리 모두 새가 된다면
 부러울 것이 없으리. 소원이 없으리
 그 날개를 취적하면서
 복년의 산천을 맘껏 보고
 혈육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영혼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두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소망일 뿐.
 생각하면 할수록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움의 심연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수록
 희망이 부른다
 통일의 희망이...

새가 된다면, 새가 된다면
 그 힘찬 날개로
 하늘을 날아
 철조망을 넘어
 그 열굴 맘껏 보고
 삼천을 구경하는 그날은 온다

새가 된다면, 새가 된다면
 우리는
 원이 없어라



낙원

최 호 정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어두운 곳에서
한 발자국씩 내딛는
걸음은 조심스럽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흐르는 곳

이념의 갈등 속에서
둘이라는 꽃대를 세워야 했던
지난날의 악몽을 되새기며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끝을 향한 나의 최대 목적지인
빛이 있는 곳을 찾아
나는 끝없이 걷는다

순간 나의 손에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를 이끄는 힘
끝없이 달렸다
그 달림의 끝은 빛이었다

나를 이끌어준 사람
그를 본 적은 없다
나와는 달랐다
그러나 그에게서 느껴지는
동질감과 친근감
하나였다

하나였던 나의 반쪽
그 반쪽을 만나
나는 빛을 찾았다
둘이 아니면 찾을 수 없었던
빛의 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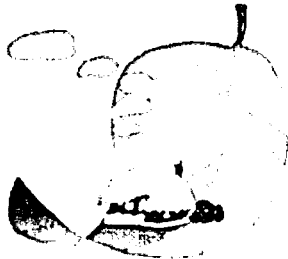
하나가 되어 마음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낙원에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더 이상의 심기류는
필요 없다고...

걸혀라, 인개야

김유나 / 소래고등학교 1학년

저 강너머 삼만리 떨어진
옛 우리 고향 그림다.
걸혀라, 인개야



장이야 장이야
장기두시며 춤추시는
우리 할아버지 어깨춤도 그림고

톡탁 톡탁
개물가에서 빨래하시는
우리 할머니 뺨망이질도 그림고

나리 나리 개나리
앞마당에서 고무줄 놀이하는
우리 누이의 검은 고무신도 그립고

뚝뚝뚝뚝
뒷마당에서 새총만드는
우리 아우의 망치질도 그립다.

고향 생각에 가슴 찡 주먹으로
드리우고 싶은 안개
고향 생각에 흘렸던 눈물로
드리우고 싶은 안개

안개 뒤에 가려진
기약없는 소식들

햇빛으로 사라질
그 날을 되뇌이며
다시 외쳐본다.
걸혀라, 안개야

혈류 (血流)

박 태 준 / 태성고등학교 2학년

검붉은 피바람이 잔혹한 과정을 토하던
그때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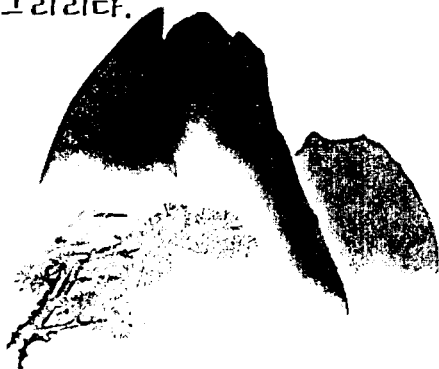
하이얀 혈조각의 슬픈 민족을 쫓아내던
까마귀는 어디에 있는가?
혈류가 끊어져 감은 민족의 비통함이건만.
야속한 까마귀는 희혈을 거뭇하게 물들이고 있네

자주 광복 부르짖던 선조의 피가 애처로운 흙내음
담아내어
편히 갈 수 없는 그 땅을 부르짖는도다.

어이해야 때늦은 태양, 이제서야 암운을 내쫓는고...
폭염의 굴레 안에 마지막 숨소리 거칠던 황혼이지만,
흰 천 조각의 안식을 위해서인가?
끓어오른 핏줄이 영속을 제하려 하기 위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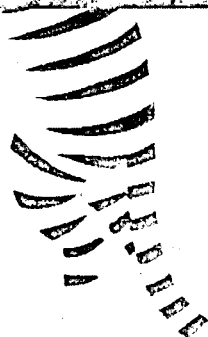
혈류가 하나되어 가고 잊음을 그대 아는가?
천공의 호수에서 풍기는 서광이 그대 감을 때 부디
어루만져 주오

차가운 피에 진주빛 생기 어떠한가?
그토록 원하던 동포와 민족의 피는 하나로 흐를
것임에
나는 영원한 여름을 그리리다.





강원



기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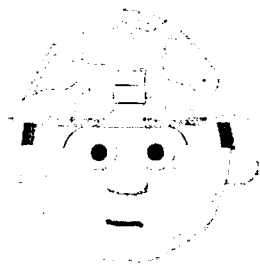
최 윤 지 / 옥계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가
일흔을 눈앞에 둔 아들의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몸을 가누지 못해
휠체어에 몸 맡긴 아버지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며
큰 걸을 물렸습니다.

50년전 총부리를 겨누었던
임민균 동생과
국군이었던 형이
다시 만나
하염없이 바라보며
통곡의 세월을 삼킵니다.



가슴 저리도록
그리웠고
아팠을
그분들에게

통일을

너무나도
간절히

불러봅니다.

하늘에 누군가가
계시다면
기침만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세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풍선속에 사랑의 편지글



이 지 수 / 비봉초등학교 5학년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하나
은통 붉은 비라글 뿌려 놓았다.

휴!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반 아이들은
비라 찾기에 호떡집에 붙잡듯
바삐 움직인다.
많이 주으면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니까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시고
금강산 금경도 다니는데

북한에서 온 비라는
예전처럼 똑같다.

어서 통일되어
고향에 가시고픈
외할아버지의 주름진 손 위에
통일의 소망담은
내 마음속 빨간풍선 하나를
띄어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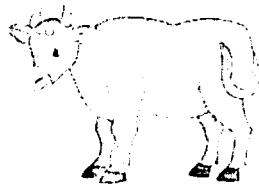
알콩달콩
사랑의 사연 가득담은
남과북 하나되는
빨간 풍선을

통일의 길

문 상 돈 / 속초초등학교 6학년

아슬아슬 넘어질까?
아슬아슬 떨어질까?
조심조심 다가갈 우리의 통일의 손길

소 한 마리 건너가서
새끼를 낳고
묵수묵수 한그루 넘어가서
밭을 이루고
우리의 손길 하나 하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어느새 하나되어지는 우리 민족



처음의 시작은 돌 하나 놓여진
 징검다리 같...
 이산가족의 만남을 이루고

두 번째 만남은
 나무로 만든 흔들 다리
 헤어질 가족에게 편지가 되고

열 번 스무 번 만나면
 통일의 다리는
 튼튼한 철골로 된 다리가 된다는

그 날이 오면
 북의 백두산으로 등산도 가고
 금강산으로 단풍놀이도 가고
 외국인들도 우리자연의 아름다움
 흠뻑 빠져 버린다는

그 날을 위해
 작은 노력 하나 하나 실천하면

통일의 그 날 멀지 않고
반가이 맞을 수 있다네
우리의 형제, 자매 들 을...

금강산을 바라보는 눈으로...

민지혜 / 신천중학교 3학년

금강산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자.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우리 서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저 봉우리마다

수려한 얼굴들

저 끝자기마다
그윽한 마음 담아
우리 서로를 바라보자.

헛디디어
저 아래 구름속으로
빠져버려도
좋아라...

그리운 금강산들
보는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자.

그 동안
갈라졌던 것
흠어졌던 것
아까운 나날들...
허사로 보낸 세월들...

훨훨 날려버리고

서로 익어 가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자.



친구야, 손을 잡자

정 유 경 / 우석여자중학교 2학년

친구야,
51년전 이땅에 없었던 우리는
전설같은 우리의 역사를
슬픈 영화처럼 알고 있지.

알듯, 모를 듯
다시 맞는 유월은
오래 가뭄속에
너의 땅
나의 하늘은
침묵의 세월만큼이나

목말라 하고 있구나.

날마다 날마다
 단비를 기다리 듯
 눈물로 상봉하며,
 희망의 발걸음으로
 통일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 높지 않은 거리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는 타인처럼 살았지만
 타인이 아닌
 한 민족 한 핏줄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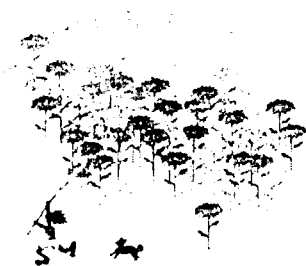
이제 서로의 문을 활짝 열고
 너희들이 우리를
 우리가 너희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하나가 되기 위해
 친구야, 손을 잡자.

함께 백두대간을 오르며
 슬픈 유월의 기억을 잊고
 광활한 웃음벌판
 하늘같은 푸르른 희망을
 우리가 먼저 꽃피워보자.

미움을 모르는 우리가
 절망을 모르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로 만들
 우리 조국을 위해
 뜨거운 사랑의 손을 잡자.



흐르는 강물을 보며



김 보 경 / 남춘천여자중학교 2학년

발길을 멈추어
 춘천호의 흐르는 강물을 본다.

손을 넣어 만져본 강물은
 내 손을, 내 가슴을
 6월의 하늘보다 더 푸르고
 더 깊이
 적시어 준다.

백두산 원지에서 태백준령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차게 흘러온 강물.

또다시,
너른 평야를 휘돌아
큰 바다에 다다르기까지
도도히 흐를 강물.
그렇게 흐르는 강물은
따스히 감싸라 한다.
하나로 흐르라 한다.
말없이 흐르라 한다.

돌아오는 길,
멀어진 춘천호의 끝점을 보는
내 눈이 젖어온다.
가슴이 더워진다.

노인의 추수

송 영 윤 / 속초고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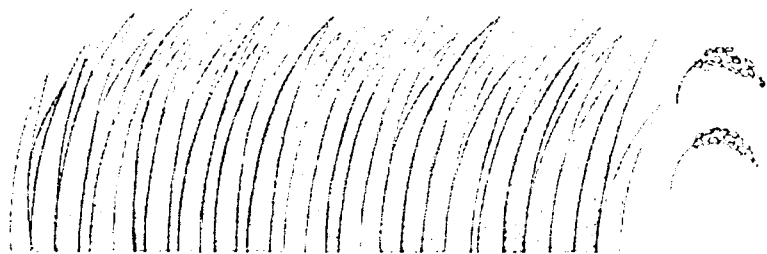
주름 끄끔마다 거두인 시간은
 이젠 통곡아니라
 굳은 초점으로서의 불망(不忘)이었다

가늘게 소스라치던 기억도
 희뵈게 살아 오르던 동공도
 그저 50년, 묵은 재가됐음에
 그 거름 휘뿌려
 이제야 거둘라 많은

노곤히 시들어오는 이 맥은
 시리게 잦아드는 고동은,
 어이 이 땅 디디어 버틸까

잡아라, 잡아주어라
 솟구치는 맥으로
 활닥 뛰는 심장으로
 이 대지를 갈구라

그 가을 오리면
 여며두었던 시름 풀고
 덩실덩실 춤을 추리니
 이 대지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리니



민들레 소망

박 하 나 / 복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사월입니다.

어느덧 꽃피는 사월이 돌아왔어요.

나는 민들레랍니다.

조심스레 기지개를 켜며 몸단장을 해보아요.

햇님은 따스히 나를 향해 미소짓고

뫼비우스는 봄바람은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내 몸을 어루어 줍니다.

어느덧 꽃피는 사월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는 제비가 찾아오는 남쪽입니다.

두 손에는 굳게 쥐 쯤 총대
 머리에는 깊게 눌러쓴 무거운 철모
 두 눈엔 끝없는 안타까움을 가득 담은
 재복의 군인들이
 이 땅 위에서 잊지요.

어디를 보고 있나요?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 시절 머무는 곳은
 그저 드넓은 하늘뿐인데.....
 바람결에 내게로 전해지는 한숨소리
 가슴 시린 적막감

나를 보아요.
 나는 두 개의 얼굴로
 같은 하늘 아래 미소를 지어요.
 얼굴은 달라도 이름은 하나뿐인 나,
 믿들레합니다.

오월입니다.

한차례 이화수가 지나고,

꽃이 시든 자리에선 날개가 돌아났어요.

보송보송 하얗고 둥근 날개는

날 저 멀리 하늘로 데려다 줄 거예요.

나는 날아가고파요.

저 멀리, 아직 내가 가 본 적 없는 그곳으로.

북녘의 땅에서 난

무슨들레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요.

※ 무슨들레 : 민들레의 함경도 지방 방언

그대 누운 자리에 - 어느 실랑양민의 무덤 앞에서...

최희진 / 신철원종합고등학교 2학년

그대 누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허락된 빈 뜻음 속을 뒤척이며
이 곳, 당신의 땅을 밟아봅니다.

흡어진 마지막 숨,
그대 고인 눈물로
흠은 나를 일으킵니다.

어깨 위로 앉은 검붉은 노을을
거두어내지 못 하고
굳은 입, 얼은 발을

메지 못할 채
이내 눈을 감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던 땅을 밟아봅니다.
꼭 같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얼귀진 기억들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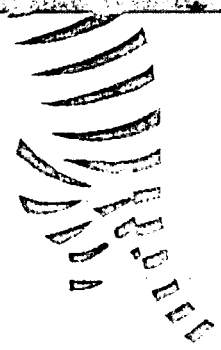
집은 기다림으로 스러진 그대는
어디에도 없기에,
눈을 뜨면 목메일 당신이기에
나는 몸을 낮춥니다.

그대 누운 자리에 눕습니다.
내 마지막 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총부



고향을 기다리며

정 소 영 / 증평초등학교 6학년

파아란 하늘에 흰구름이
서로 만나서
얇게 구름도
새털 구름도 만듭니다.

금빛 물결 은빛 파도
푸르른 동해의 바다 속에서도
소근소근 긴 이야기 전해줍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 울리며
큰 눈 꿈뻑거리며
소 떼들도 임진강을 건너갔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노래부르며 유람선도 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북쪽을 향해 따뜻함을 보내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퐁퐁 언 얼음장도
 훈훈한 봄바람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가듯.

한라산에서 번진
 진달래 연분홍 빛이
 백두산을 물들이듯

넉넉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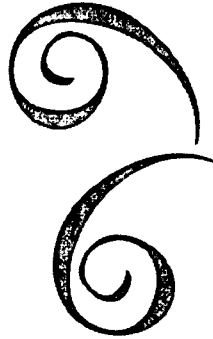


6월

윤 희 원 / 구정초등학교 6학년

6월이면
 휴전선 근처에
 망초꽃이 하얗게 피고
 들새들도 모여듭니다.
 북쪽 친구들 그리면서.

어지하면
 저 북녘 땅 친구들과
 손잡을 수 있을까
 웃고 뛰놀 수 있을까?



어제하면
50여년 넘길 한글

풀 수 있을까?
함께 춤 출 수 있을까?

기다림은
한 가닥 한 가닥 풀어져
남과 북 대표가 만나고
마주 잡은 두 손과
함박 웃음 속에서
열음이 녹고

6월에도
웃음이 있단다.
통일을 꿈 꿀 수 있단다.
한 발짝 통일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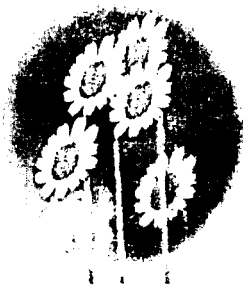
통일의 그 날

남 원 속 / 추풍령초등학교 6학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나의 잘못을 더듬어 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화해의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어긋나려고만 했던 마음.
그 마음을 버립니다.

그 날을 같이 기뻐하기엔
너무나 달라진



문화를 생각하며
덧없이 흘러 보낸
세월을 탓해 봅니다.

두둥실 떠오르는
저 8월의 보름달 아래
한민족이 하나 되길 바라며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그려 봅니다.

그 모든 날을 바라며
이제 미움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 현 정 / 현도중학교 2학년

새라고 해도 모두다
자유로이 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날아도 갈 수 없는 곳
그러나 소망한다
꼭 같이 가기를...

눈물이라고 해서
다 슬픈 것은 아니다.
아무리 흘러도 아름다운 것
그러나 원한다.
꼭 함께 있기를...

너무나 짭쫇하기에
 너무나 기뻐하기에
 물어야만 했던 시간들...

마주잡은 손.
 아름다워라,아름다워라.
 함께하자, 함께하자.
 하며 약속하던 외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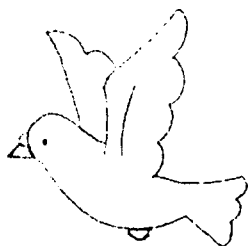
부둥켜 안은 모습
 이미 너무나 변해버려
 사랑보다는 그리움으로 다가선
 세월의 흔적들...

너무나 가까웠기에
 너무나 냉정했기에
 손 한번 뻗어보지 못한 곳
 비둘기의 날개짓도 멈추게 한 곳

차가운 혈조망 사이에
 감추어진 마음의 장벽이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눈과 입, 그리고 귀를 가려 버렸다.

그러나 꼭 잡은 두 마음
더욱 간절해진 통일의 그리움.
그 모든 것들이 철조망을
따뜻하게 적셔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이룬다.
마음의 통일이라는 것을...
비둘기의 날개짓 속에서도
가장 높게 비상할 통일의 날개가

비를 내리소서

남슬은 / 영동중학교 1학년

이 봄에
비를 내리소서
열정과 아픔의 씨앗으로
통일이란 꽃을 피울
비를 내리소서

보고픔에 목마른
피부가 들 소리 없는 눈물이
이내 가슴과 가슴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소서

탕탕- 총소리와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를
 빗소리에 지을 수 있도록
 거센 비를 내리소서
 악몽의 벽을 지나 만나
 내 님과 내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통일 노래 부를 수 있을
 그 날을 위해,
 민족의 험년 새삭을 다시 키울
 그 날을 위해
 축복의 비를 내리소서



하늘을 보며

조혜연 / 무극중학교 3학년

땅거미 으스스한 도심속
네모반듯한 건물의 한켠에 서서
살며시 눈동자를
북쪽 하늘로 보내본다.

망이야 북으로 북으로 가다보면
끊지 못해 서러운 철조망 있다지만
북위 38도선 하늘 위를
덤그러니 막아 놓리 없는데,

오늘 본 북쪽 하늘은
서럽기만 하다.

이제와 누구를 닦할 수도
 붙잡아 놓고
 채찍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다.
 우리가 해 놓은 현실이 아니기에
 그 고통은 더해만 간다.

이제는 서러움없이
 북쪽 하늘을 보며
 숨을 쉬고 싶다.
 별을 보고 싶다.



통일로 피리

박 윤 희 / 보은여자고등학교 3학년

말라버린

붉은 강줄기 위로

50년이 흘렀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푸르른 하늘 아래서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르는

강줄기를 보면서

금이 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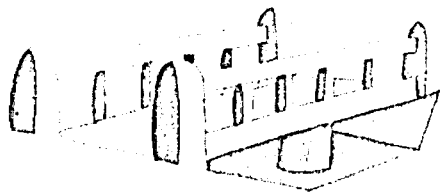
가슴은 내내 통곡하였다.

동화 속
듣는 귀의
은은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피리 소리를 빌려다가
금이 갓 가슴에다
묻어주자.

바람에 실어
끊어진 다리에 날려보내자.

다리 아래
메마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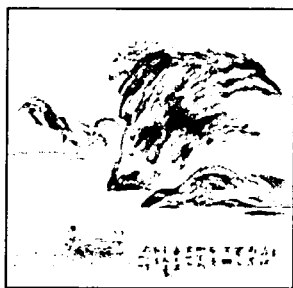


강줄기에 맑은 물이
흥겨운 농악으로
흐를 때까지.
강강술래 율무로 절정에 이를 때까지
통알의 피리
염원을 담아.

물처럼

홍은옥 / 충북여자고등학교 2학년

아직은 두 갈래의 강줄기
언제나 흘러내려 갔기 때문에
흐름이 멈춤인 줄 알았던 강은
이제는 알 수 있다.



강은 멈추지 않았다
흐르는 것은 바다를 향함
무연의 물분을 토해낸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기도였다

그 흐르는 물을 따라
우리는

호랑이의 등을 이어주는
살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 흐르는 물을 따라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림고 보고팠던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

가족을 만난 기쁨과
오래 함께 할 수 없음은
강물에 보태지는 눈물 되어
또 다시 바다로 갈 것이다

바다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칼 같은 달빛이 비치던 밤은 지나갔고
엄마손 같은 햇빛이 비치길 기다린다

우리 물이 되자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흐르는

강물이 되자

그렇게 바다에서 하나되자

자유를 모르던 어린아이는

이제 어른이 다 되었고

두 강줄기는 바다가 되어

고래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

겨울은 가고

나 지 영 / 충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아가야, 우리 어렸을 적엔
 함께 샴으로 들로 봄나들이 갔답니다.
 진분홍 진달래꽃 화전 부쳐
 나 네 입에 넣어주곤 했답니다.

그때 우리 이마에 주름살은 없었다.

형제야, 우리 자라날 적엔
 함께 냇가에서 멍을 감곤 했답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맨몸으로
 물장구 두근두근 가슴 열렸지.

그때 우리 가슴에 칼자국은 없었다.

친구야, 우리 학창시절엔
작은 편지지 한 장에 마음 녹이곤 했다.
언젠가 낙엽지던 날
몹시도 아팠던 나를 밤새 지켜 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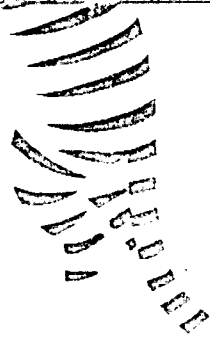
그때 우리 사이에 겨울이랑 없었다.

아아, 아가야, 형제야, 친구야.
함께 누려보지 않으려
뭇사람 그리움 맞잡은 손으로
큰 강물 이루며
우리 다시 그날을 누려보지 않으려.





충남



둥글게 둥글게

정유진 / 금곡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 날 강강술래를 할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이 맞아야 예쁜 원이 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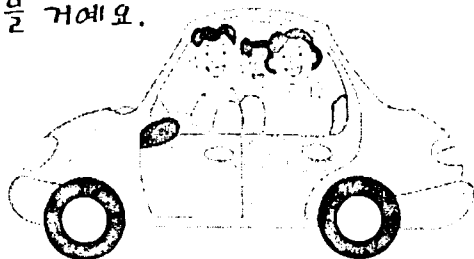
싸운 소영이와 잡은 손
손을 놓으면 둥근 원이 찌그러질까봐
역지로 잡고 있었는데
소영이 손이 따스했어요.

통일을 이루려면
마음부터 둥글게 써야지

야속한 마음, 미운 마음으로는
 집 앞 고개도 넘지 못한다
 이산 가족이 만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지요.

북으로 북으로 달릴
 기차 바퀴가 둥근 것처럼
 남북 대결을 하던
 탁구장의 공이 둥근 것처럼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손잡고

둥글게 둥글게
 아주 예쁜 원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되어
 남으로 북으로
 씩씩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통일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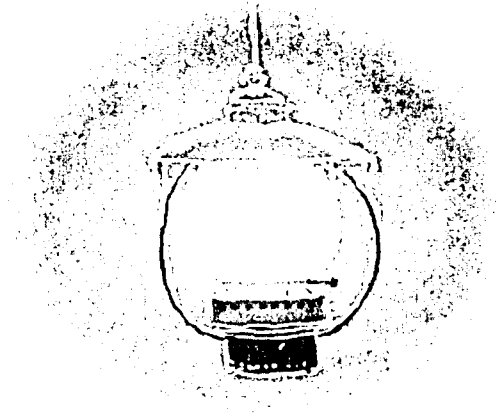
최진실 / 온양온천초등학교 6학년

휴전선으로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되면
그 이름도 빛나는
삼천리 화려강산

남과 북으로 헤어진
우리 겨레 하나되면
그 이름도 자랑스런
한 핏줄 배달의 자손

우리 서로 다시 만나
서로 서로 손잡으면
그 이룸도 드높은
동방예의지국

삼천리 화려강산에서
배달의 자손
서로 다시 손잡으면
동쪽에 해 돋는 나라
세계의 등불이 된다.



두손 잡아듯이 마음도 잡아

이 목 / 온양천도초등학교/3학년

저 삶 너머
저 강 건너
부르면 대답할 듯
가깝고도 먼 땅.

천만명 이산가족
50년 세월
함눈에 알아보고
아버지! 어머니!

2박 3일 만남 속에
그리움 나누며
“오래오래 사세요.
통일의 그 날까지.”

황해도 해주에 사신다는
고모 할머니도
할아버지 생각하며
물고 잊겠지?

대통령 할아버지 김정일 국방 위원장
평양에서 만나
두손 잡았듯이
마음도 잡아



한번이 열번 되고
열번이 백번 되어
휴전선 그따위것
없애버리고

눈물이 웃음이 되고
웃음이 통일이 되는
대한민국 통일의 나라
함께 만들어요.

일구는 통일

이혜운 / 조치원여자중학교 2학년

어린적 할머니 팔베개 속에서
들은 이야기

목녀봉 저 끝에 매달린 무지개
뱃물이 시원한 참흥냉면

할머니의 꿈이 나에게도 꿈이 되었다

친구의 폭 꺼짐 두 눈에 초롱초롱 눈망울을
친구의 나무토막 같은 팔에 새삭을

꿈을 일구자

꿈을 일구자

얼마전 할머니 텔레비전 앞에서

들은 이야기

생사 모르는

우리 동생 얼굴 한번만 볼 수 있다면

할머니의 희망이 나에게도 희망이 되었다

소들아 어서어서 올라가거라

옥수수들아 어서어서 자라나거라

희망을 일구자

희망을 일구자



애기봉 제비꽃

마대형 / 천안쌍용중학교 2학년

통일 체험 학습으로 찾은 애기봉
 임진강물은 남과 북 구별 없이
 서해에서 만나 열싸얌고 춤추는데
 망원경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강 건너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다.



할아버지 머리칼 같은 하얀 두루미는
 끼룩끼룩 친구를 부르며
 남녘 하늘 북녘하늘 오고 가는데
 할아버지는 강 건너 고향 땅에서

어릴 때 뛰놀던 꿈을
망원경으로 찾고 계신가 보다.

하느님!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남과 북 자유롭게 오고 가는 두류미처럼
통일이 되어 금강산 수학여행 가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애기봉

갈가에 제비꽃들도
다소곳이 고개 숙여
하늘 향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 애기봉은 경기도 강화에 있는 북한 땅이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http://www.통이알.com>



곽 관 봉 / 한산중학교 2학년

요즘 제일 인기있는 사이트
클릭 한 번으로 열리는 세상

그곳엔

서로 충부리를 겨누는
털은 굳이 아저씨도 없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이삭가족도 없다.

그곳엔

항상 해맑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만 있다.

힘차게 두 손 맞잡은
우리 겨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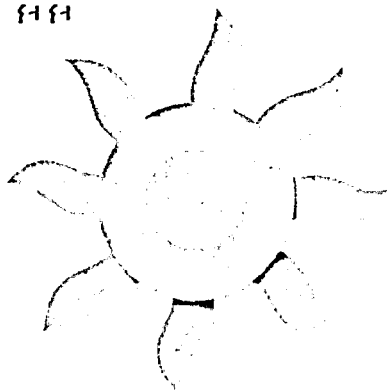
만남

편승수 / 홍성고등학교 3학년

숨막히는 어둠의 끝에 서서
한줄기 내리쬐는
햇볕을 보았다

향기로운 빛의 축재
어둠을 녹이고
바다마저 녹였다

바다 길이 열리고
대지가 눈을 뜰 지니
시원한 웃음소리 하늘을 뒤덮으리



한숨뿐인 삶의 끝에 서서
 얼마 남지 않은
 추억 속의 하루를 보았다.

답비 찾는 농군의 마음처럼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기다리던
 아름다운 만남이여

빛과 어둠이 어우러져
 낮과 밤을 만들 때
 영혼의 양식을 찾으리니

백두대간 무궁화 만발하고
 허리 잘렸던 호랑이의 포효소리
 다시 한 번 하늘에 울려 퍼지리라

눈물 뿌려 기다린 그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천지가 눈물 들어 우러르리

혜강의 소리

양미화 / 논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50년 세월의 긴 터널
잡게 드리워진 어둠
깜깜한 그 안개의 벽 속에
한 맺힌
서글픈 울음소리

희망과 사랑을 실어 나르며
힘차게 달리던 철마는
녹슨 쇠덩이 되어
무뎠더니 서 있다

이젠 우리 모두
화해의 미소로

희망의 소리로
 어둠을 가르 는 하나의 끈으로
 끊어진 남북을 이어야 한다

뜨거운 눈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며
 그 길을 따라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철마의 힘찬 기적 소리가
 토말에서 회령까지
 희망과 사랑을 실어 나르고
 무궁화와 모란이
 한밭도 가득
 희망과 웃음으로 피어날
 장엄하고 우렁찬
 희망의 내일을 위해....

형제의 다짐

천 해 범 / 온양고등학교 1학년

형제여!

촉촉이 비가 내릴 이 땅에

이랑을 고르고

씨를 뿌리자.

우리 형제 못본지가

50년이 지났구나

이제 다시 나와 함께

씨를 뿌리자.

똥약볕에

흙 앞강이 까맣게 그슬리고

지리한 장마에

밭고랑이 뚱개겨도

콩작등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환한 웃음으로

스스 닦아내자.

어머니의 품속처럼

다사로운 이 땅에게

한상 차려놓고

지난날 응어리진 가슴을 이야기하자.

형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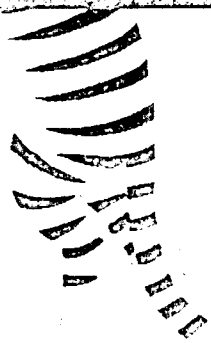
가을별 따가운 들판에서

금빛 찬란한 내일을 위해

김도 매고 거름도 주자.



전북



이별의 아픔은 이제 그만
-코흘리개적 헤어져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
만났습니다-

박성훈 / 용동초등학교 6학년

어제
내 짝과 싸웠습니다

책상에 휴전선을 긋고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연필도 빌려주지 않고
가져오지 않은 책도
같이 보지 않았습니니다.

마음엔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고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한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슬그머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공이 식 웃으며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얹힌 답답함이
속 내려갑니다.

휴전선도 지우고
연필도 빌려주고
책도 같이 봤습니다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등을 돌리는 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나라 두 동강이 낫지 50년
코흘리개적 헤어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만났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 길어
 어색함이 흐르지만
 두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세월의 아픔을 씻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별의 시감을 갖지 않도록
 다시 또 어린 가슴에 상처 주지 말고
 그 많은 세월의 아픔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
 서로 안을 수 있는
 하나된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평양 할머니

김 태 래 / 이리동초등학교 6학년

극기훈련 떠났던 지난 봄
친구들 틈바구니에서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잠든 뒤에도
이불 다독이시고,
볼에 입맞추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웠어요.

작년 여름 다녀가신
평양 할머니
아버지는 50년이나

그리움을 키우셨나봐요.

할머니 볼을 비비며
 눈물만 철철 흘리시던 아버지
 이제 먼 산만 바라보십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즈막히 부르시며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이제 내 가슴에도
 그리운 할머니가 계십니다.
 휴전선도 무너뜨리고, 만
 그리움이 자꾸만 커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즈막히 부르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할머니의 가슴속에
 통일 노래 소리가 될거예요.



아버지의 이불을
다독이시며
환한 미소 지으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통알의 꽃을 피울거예요.

통일의 약속

김혜인 / 서수초등학교 6학년

휴전선은

새들만이 날아가고 날아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넘으셨지요.

휴전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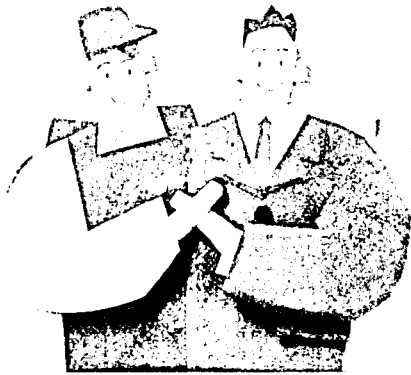
들짐승 들막 넘어가고 넘어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의 씨앗을 안고 넘어가셨지요.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7천만 거래가 지켜보는 데서
두 손을 꼬옥 잡고
남북통일 다짐했지요.

12년이 지난 지금은
7천만 거래는 가슴만 열레이면서
두 분이 약속하고 약속한 통일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만남

김 대 인 / 군산월명중학교 3학년

어느 산하가 이처럼 뜨거울 수 있을까?
어떤 산하가 이처럼 결실할 수 있을까?

베어내도 다시 돋는 풀잎처럼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강인한 혈육의 정.
갈라놓을 수 없는
현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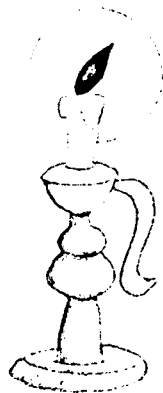
박새기를 건너 뚝 주름진 얼굴들
심심한 젊음을 꺾고

그리움에 목 메인 눈시울로
내 아들들아! 딸들아!

아버지! 어머니!
부르다 통곡하다 혼절한 사랑이여!
병상에 누워서도 오직 한 마음
그 얼굴 보고파 눈을 못 감네.
혈육의 끈을 놓지 못하네.

이 큰 아픔 갈라진 땅덩이 모아
함 가슴에 품고
만만세 피워낸 번영의 꽃으로
질곡의 혈흔을 지우리.

함 핏줄 우리 민족 열사 안고
서로의 심장으로 노를 저어
통일의 파도를 타리.
동방의 등불이 되리.
은 세상의 빛이 되리.



읽어버린 믿음을 찾아서

김민재 / 삼남중학교 3학년

조금씩

조금씩

느리게

아주 느리게

서로의 호흡을 충분히 맞추어가며

받드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남과 북에서 내민

따뜻한 두 손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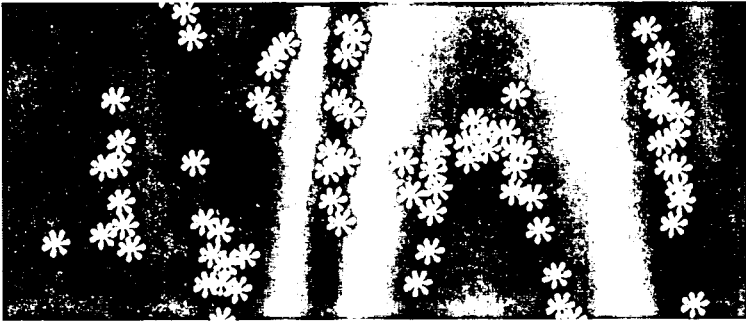
굵은 용기 - 그 앞에

오래 전 빛나던
 언어와 역사와 전통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라
 본디 우리는 하나였어라

이제
 평양에서 서울까지
 경주에서 개성까지
 함흥 냉면에서 전주 비빔밥까지
 그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되어 흘러라

돌이켜
 쉼 해전 미명에
 온 삼천을 물부질던
 빛과 소리와 진동 따라
 사라져간 믿음
 이제는 찾았어라
 돌아왔어라

삼천리 밭도
금수강산에
다시 찾은 믿음의 꽃
환짝 피우리라
은 세계에 피우리라



고 날이 오면

황진희 / 부남중학교 3학년

휴전선 산 자락에 푸르름이
가득차 오르면
나의 마음도 부풀어 오릅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북쪽에서 이는 바람과
남쪽에는 응답하며 일어나는
향긋한 꽃내음이
내 마음속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먼밭치에서 보이는 이북의 풍경은

그러 내 옛고향 마냥
정겹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개굴개굴 시끄럽게
물어대는 개구리 소리도
이북의 향수에 푹 빠져 있을 때에는 그저 정겹기만
합니다.

가만히 고개 숙여 봅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꽃이되고, 새가 되었는지
말은 영혼의 소리가
내 마음속을 파고 듭니다.

새가 된 영혼들은 참 좋겠습니다.
살아생전 그리 가보고 싶었던
이북의 하늘을
튼튼한 날개로 힘껏 거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들꽃이 된 영혼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이 밟고 자라온
 정겨운 흙내음을
 맡으며 자랄 수 있으니깐요.

이곳 저곳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모습들이
 배이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흘러간 강산도
 파아란 하늘과 들판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그 옛날 50여 년 전의 들꽃들도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아
 통일의 영원을 기원하고 있으니깐요



우리 모두 그 옛날 그 분들처럼
 두 손 모아 기도한다면
 피맺힌 과거들은
 모두다 잊혀지겠지요.

그럼

새가 되고, 꽃이 된
나의 할아버지들은
손뼉치며, 서로를 열싸얌으며
마음 편히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남은 나의 형제들은
마음껏 오마니, 아버지를 찾아
이쪽과 저쪽이 아닌
같은 하늘 아래서
오십여 년 전마냥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지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억속에는
전쟁의 상처가 아닌
역사속의 고귀한 자료로 남겠지요.

조금씩, 한발씩 내딛어 나가다 보면
푸른 하늘의 새는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고,
푸른 들밭의 들꽃들은
가슴치는 날들도 없게 되지요.

그 날이 오면,
자라나는 푸른 새싹들은
통일의 광장에서
마음껏 기개를 떨치며
아름답게 살아가겠지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천지와 백록

김 나 래 / 마령고등학교 2학년

태백산 골은 등줄기 타고
위로 천지 품은 백두와
아래로 백록 담은 할라가
극음을 끼고 섰네

천지의 기품을 이어받은
이 땅의 선인들
몇 백 번 솟은 강산에
영롱한 혼을 담아 이 나라 지키셨네

그러나,
 바다 건너 검은 구름 메 물려와
 우리 누이 밭 담그던 실개천은
 짙은 피로 물들었네

내 곁 돌아오마고
 굳게 약속하던 그 말,
 섬뜩한 철조망에 걸려
 팔십의 할머니 한 맺힌 피눈물 흘리네

말라가는 천지
 썩어가는 백록은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밤 백년을 울었네

이제는, 새로운 해가 떴으니
 따듯한 손과 마음으로
 지난날 피의 역사를
 한탄감물에 말끔히 씻어버리세

북천만 민족의 염원, 경미선에
화합과 평화를 심고
대륙을 건너 저 쪽까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알리세



통이로

이 동우 / 안성고등학교 3학년

보이지 않는 안개를 걷어서
퇴색해 버린 별들을
빛나게 할 수 있다면,

되야별에도 열어붙은
강물을 녹여
허리 힘 연어 한 마리
거스르게 할 수 있다면,

태백의 줄기 한가운데
거리낌 없이 누워

순수하고 따뜻한 피를 흘려
아련한 반도의 기억을
되찾아 주리라.

소스라칠 것 없다.
이젠 더 이상 의심 가득한 미소는 필요없다.
안개는 걷혀서
별들은 찬연히 빛을 밝히고
강물은 녹아
허리 힘 연어의
태곳적 사명을 이롭게 하리라.

다만, 나는 이렇게 환희의
물결을 흐르게 하고,
소리 없이 부는 바람에
주름져 갈 뿐이다.

거미줄 칩 당신의 눈가에
마르지 않는 설음을 닦아
금이 갑 심장을 결박했던
향수와 결별할 수만 있다면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섬뜩한 냉기를 뿜던
 금속을 거두어
 당신 앞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꽃피우지 못했던 아득한 기억과
 만날 수 있다면

백두의 끝자락에 조용히 서서
 천지의 고요하고 순결함을
 쏟아 내어
 반도 전역에 뿌리내던 이끼를
 말끔히 씻기우게 하여
 아련한 반도의 기억을 되찾아 주리라.

소스라칠 것 없다.
 이젠 더 이상 의심 가득한 미소는
 필요 없다.

얼음은 말라서
 그리움 없이 하나의 심장으로

꿈틀거리고
 금속은 거두어
 백두대간 힘차게 박동치게 하리라.

다만, 나는 이렇게 환희의 물결을
 흐르게 하고,
 소리 없이 부는 바람에
 주름져 갈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당신 뒤에서
 오색의 꽃잎을 흩날리리라.



6월의 주인(主人)

라 현 / 배영고등학교 2학년

갈라진 대지 사이로
목소리까지 잿아드는 5월이 가고

물보다 진한 희생의 강에
침잠(沈潛)하는 6월이 오면

머리 위로 열리 푸른 창문에
눈을 맞춰봅니다.

늘 마음 속으로만 그려온
당신, 내 벗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해마다 이맘때면 당신의 자리는
제 앞에 더 크게 마련되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헤어졌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시절부터
저의 6월은 당신께 봉헌(奉獻)됐으니깐요.
언젠가 한 번쯤은 비좁은 상자 속에서
낮선 눈길을 스쳤겠죠.
불러도 들리지 않았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타들어가는 목소리마저 가라앉아서

서로의 옷깃만을 만지작거리며
갈라진 하늘이 하나되길 기다렸습니다.

꼭 1년 만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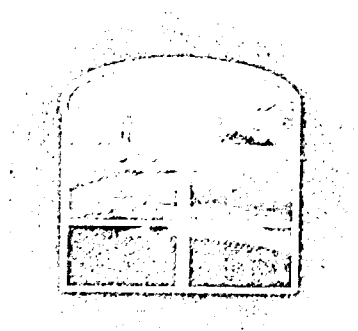
우리의 계시(啓示)를 받은 두 사람의 만남, 그 날이.
벗이여,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날에 맺혔던 당신의 기쁨을.

붉은 꽃으로 수놓인 푸른 하늘은
저희에게 주신 당신의 선물이었음을.

이제는 제가 당신께 선물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朱雀대로(朱雀大路)로
 다시 반가운 손님이 오실 것을 믿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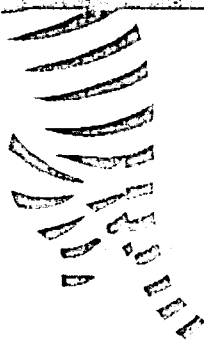
우리가 말없는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태양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벗어나고픈 곤궁(困窮)함이 서리고
 저의 눈에 더욱 여름의 나른함이 깃들었지만

우리의 두 눈을 같은 하늘이 품어주는 한,
 좁은 창(窓)에서 벗어나 시원스레 목놓을 날은 옵니다.





전남



갈라진 우리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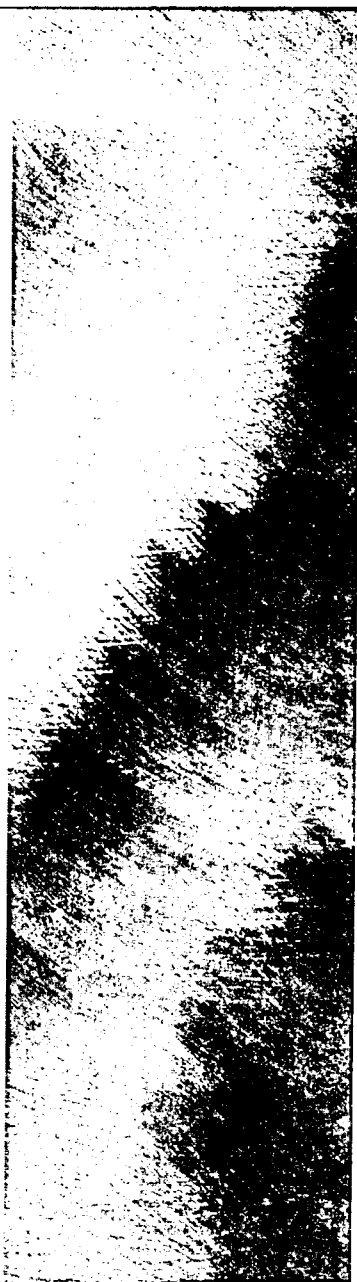
오 지 운 / 연산초등학교 5학년

우리의 땅을
갈라놓은
6·25 전쟁.

우리의 민족을
갈라놓은
6·25 전쟁.

전쟁은 우리 뜻이
아니었지만,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남·북 갈라진 지
어언 50년.
이제는
서로 서로 손을 잡을 때,
갈라진
우리 땅, 우리의 민족,
서로 서로 힘을 합쳐
통일 조국 만들어 보세.



별을 바라보며

박 아 름 / 여수소호초등학교 6학년

한낮의 더위 물러간
이 저녁엔 모두 나와
밤 하늘 별을 바라보자.

남쪽 하늘의 별
북쪽 하늘의 별
온 하늘에 가득한 별
빛나는 별을 바라보자.

남쪽 하늘 아래 사는 아이
별같이 수많은 아이

하늘 가득 빛나는 별
 너도 나와 보고 있느냐?

북쪽 하늘 아래 사는 아이
 별같이 수많은 아이
 하늘 가득 빛나는 별
 너도 나와 보고 있느냐?

방방곡곡 모든 아이
 별같이 수많은 아이
 모두 모두 나와 보고 있느냐?
 남쪽 하늘 아래 사는 아이
 북쪽 하늘 아래 사는 아이

본래는 한 하늘이고
 하늘 가득 빛나는 별 아래
 손 잡고 점점게 살아 온
 한 뿌리 한 나무 아니었더냐?

공해 때문에
 하늘이 시커매 가다지만
 검은 구름이 몰려 와
 하늘을 가린다지만,
 하늘 가득 빛나는 별빛이야
 어찌 색칠 수 있으랴!

해 지고 산 그늘 물러가면
 어둠이 깊어 온다지만
 가시나무 엉겅퀴로
 이 땅 한복판 쌓인 한이야
 어찌 색칠 수 있으랴!

이 땅 하늘엔 별 가득 빛나고
 이 땅 아이들 마음 속엔
 한 마음 한 뿌리
 든든히 커가는데
 우리들의 희망 눈물로 키운 희망
 어찌 뿌리채 흔들리랴!

흙 먼지 이는 역사라고
 어둠이 깃든 역사라고
 절망이 깊을수록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낙망하지 말자.

바람이 불수록
 들꽃은 억세게 피어나고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처럼 날 선 새벽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낮의 더위 물러갈 이 저녁에
 별 가득한 밤하늘 바라보며
 너희들 마음 이땅의 마음이라고
 너희들 마음 하늘 마음이라고

북쪽 하늘 아래 사는 아이
 남쪽 하늘 아래 사는 아이
 방방곡곡 모든 아이

모두 모두 어우러
분하수 푸른 물에
하늘 가득 살아 오른
역세게 피어 날
이 땅의 들꽃이었구나!



화해 · 협력 · 통일을 위한 사계

윤우정 / 토지초등학교 5학년

꽃망울이
봄을 알리며
터지기 시작했다.
통일의 꽃망울도
예쁘게
맺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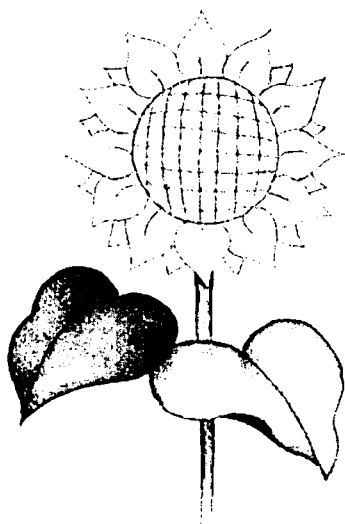
꽃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통일의 꽃도

뜨겁게
커가고 있다.

꽃이
장마와 태풍에
그 모습은
잃어가고 있다.
통일의 꽃도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꽃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이 가을을 더욱
빛내고 있다.
통일의 꽃도
그 부피를 더하면서
영글고 있다.

꽃이 떨어져
다음해를 위한



밧거름을 밧들고 있다.
통일의 꽃도
서로의 화해와 협력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민족의 베

김수현 / 영화 중학교 3학년

달그락 달그락 달각
여인의 곁고 가느다란 손 속에
밤만년 햇빛 받은
눈부신 명주의 하얀 놀음질
달군의 붉은 피로
한가닥 한가닥 뽑아내
왜곡의 더러운 칼에도
아니 끊어졌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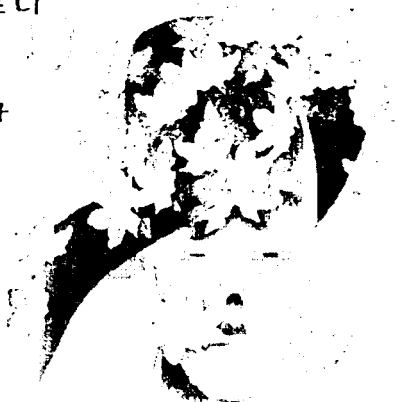
여인의 손 스스로
그 유극한 베 잘라냈으니

들로 나뉜 베의 슬픔이
눈물로 얼룩져 갔다.

슬프다 나의 여인아
은장도 잡아 주고
슬픈 노래만 부르니

그 곁고 긴 세월
먼지 수북하여도
눈물자국, 피 자욱 지워지지 아니하니
슬픈 노래 소리 들린다
달그락 달그락
베의 향과 울음이 애달프니
베틀아 노래를 불러라
다시 기쁜 노래를 불러라

다시 머리를 감아라
여인아! 다시 베를 켜라
갈라진 두 베의
아픔을 스다듬어라



손끝이 갈라지고
 피로 배어 물들며
 그 고운 마디마디
 끊어질듯 끊어질듯
 거칠 실 다시 풀어

험커덕 험커
 여인의 긴 손가락이
 묵섬여 자락자락
 기알게 풀어헤쳐
 묶어 내라 묶어 내라.

민족의 애달픈 밤
 민족의 베가 짜여간다.
 찬란하고 눈부신
 흰 놀음질을 꿈꾸며...

목메이는 한반도

조 아 라 / 지명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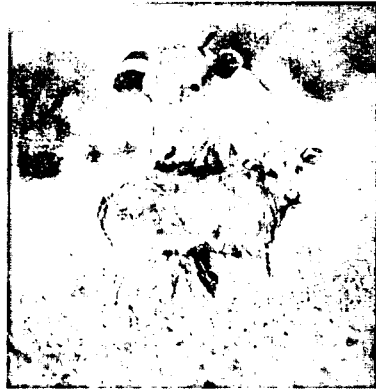
얼마나 그렸노!
휴전선 너머
물엄니, 물동상, 물누님...
함없이 불러보아도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왔거든
오늘에서야
함없이
목이 메이도록 불러봅니다.

서글픈 기쁨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메마른 나무처럼
 마음속 홀로 외로이 가족들을
 베풀 내리게 기다렸거늘.
 타드는 가슴속의 오랜 향기마저
 바람에 씻겨갔거늘.
 짧은 인생의 추억 속에서만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보고 싶소, 보고 싶소”
 “어디 있소, 어디 있소”
 집은 양개속의 눈물 젖은 외침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달리는 듯
 너무나 원통합니다.
 퍼렇게 멍든 맘
 감출 줄 모르고
 하염없이 흐르는
 가슴속 피눈물은
 그리움을 더해갑니다.

드넓은 들판에서
 망아지 애타게 어미소 기다리듯
 물엄니, 물동상, 물누님
 한 우물속에
 평화 가득할 때까지
 우리함께 극복하소
 우리함께 기다리소
 이젠 그만 잠시 동안만
 헤어지자 했거늘
 비오는 날 하늘처럼
 내 마음은 슬피웁니다.



소망

이 미 지 / 여도중학교 3학년

나는 항상 네가 부럽다.
푸르른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는 새.
너의 자유로움이
두 눈에 전해온다.

나는 항상 네가 부럽다.
푸르른 산천을
늑비고 다니는 바람
너의 자유로움이
피부에 전해온다.

나는 항상 네가 부럽다.

푸르른 바다를

오고가는 물고기,

너의 자유로움이

밭 끝에 전해온다.

나는 항상 소망한다

한 마리 새

한 줄기 바람

한 마리 물고기

그들의 자유로움이

나에게로 옮겨와



경계선 없는 하나의 길을

두 손 마주잡고

함께 걸어 갈 그날을

나는 항상 소망한다.

그대에게

박 세 희 / 영흥고등학교 1학년

1

하늘을 건너면 만날 수 있을소냐
구름 가는 길 그대로 따라보며
닿을 수 있을소냐
자라나는 몸뚱이 함께 흐르는 같은 피이거늘
이대로 모르는 채 숨을 쉬어야
한단 말이나

2

통일전망대에 올라
바닷가 아름다운 향기 맡으며

바람을 감싸다 북녘산 보다

이 바다 건너 저 산 너머 살고 있을 그대를 생각한다
 가시 하나 사이 낡 길로
 험한 맨발바닥 걸으며 피 흘릴
 너를 생각하니
 가슴 한 곳 미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바닷물결 그 투명한 소리는 어찌
 하여 한 곳으로 흐른단 말이나
 녹푸른 산아래 풀꽃의 머무름은
 같은 자리라 말이나
 알지 못할 노릇이다,
 이놈의 땅덩어리



외창살 날카롭게 갈라 놓 채
 감싸지도 못할 미련만 키워 놓았으니
 그 이유로 마음 속 헤어짐의
 그리움의 눈물의 응어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상처가 되어
 가슴 속 한곳 여전히 찢고 있다
 그리운 사람
 아아, 그대여

3

그대 다시 만나자
 우리가 눈뜨고 숨을 쉬며
 살지 못할 인생 떨어진 채 살아도
 이 땅위에 서 있는 날
 무슨 덩어리는 언젠가 하나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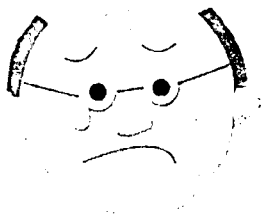
그 날을 고대하며
 붉은 피 들끓는 주먹을 뜨겁게 달구어
 그대와 나 우리들 하나로 엮지 못하게 하는
 저 무리들을 때려 없애리

그대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나리라
아직도 눈물 머금고 그대 멀어지지만
외 뿌리 가시 하나 맏몸으로 떼 내는 날
이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대를 앓고
죽음보다 깊은 상처의 이별을 잊으리
죽음보다 깊은 영원의 만남을 나누리.

그리움

강 혜 지 / 해남공업고등학교 2학년

우리동네 술보 아저씨
덤실덤실 춤추는게
그냥 취기일 줄 알았다.
그때는 말야--로
시작되는 술주정에
넌더리가 났다.
남북이 만나는
텔레비전 보면서
너나 없이 눈시울 붉어지는데



그 아버지

아기처럼 영영 우는거 봤다길래

그제사

그리움의 강물속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오랜 아픔 알았다.

그때는 말야--로 또 시작되는

그 아버지 형님 영웅담 어린시절 이야기

홍시처럼 붉은 얼굴에 떠도는

저 행복한 얼굴을 보아라.

세월이 흐른 만큼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생각속에서 먹고 자란

그리움의 끝은 애시당초 없다.

죽기 전에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란다.

텔레비전에서처럼

형님--하면서 끌어앉아 보는 게
소원이란다.

깃발처럼 펄럭이는 그리움

그러다 끝내

붓물처럼 터지는 분노가 되어

갈가에 누워 술주정 한다.

팔지 않는 기차표

최 다 은 / 혜인여고등학교 3학년

할아버지는 기차표를 사러 가시다
저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러 가시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냥 뒤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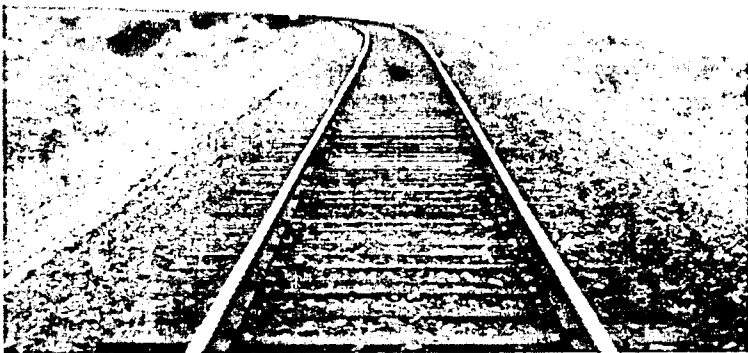
웅성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보따리를 든 어느 할머니도
아이를 안은 어떤 아주머니도
의자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들 고향 가는 사람들인데

할아버지 고향이
 평양 가는 기차표는
 팔지 않는다.

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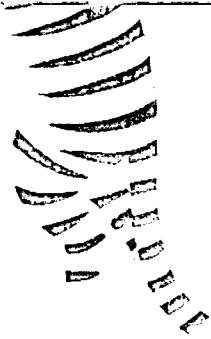
기차의 긴 울음소리와 함께
 또 한 기차가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가쁜 한숨만 내쉬는 할아버지도
 평양 가는 열차를 기다리시는 지
 비 내리는 창 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신다.





경북



통일의 꽃밭

진 해 나 / 아천초등학교 5학년

해마다 6월이면
 들려오는 노래 속에
 남북 정상 약속의
 초록빛 꽃씨를 뿌렸습니다.

한민족 하얀 꽃이
 예쁘게 수놓아졌던
 한반도 꽃밭에
 50여년전 피어난
 38선이라는 흉한 잡초를
 화해의 약속꽃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새로이 뚫터오는
 약수꽃 봉오리에
 사랑이라는 물을 주고
 믿음이라는 거름을 주어
 통일의 꽃밭으로
 만들어 보냅니다.

남과북
 최고의 할아버지들이
 다정히 두 손 잡고
 온 국민의 가슴에 뿌려준
 약수의 꽃들이
 한반도 통일의
 멋진 꽃밭 일구어
 세계인의 가슴 속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통일의 노래

김 낙 경 / 울릉초등학교 6학년

바람은 솔솔
 실바람이 우리 할아버지의 몸을 감싼다.
 어디에서 온 바람일까?
 북한이 할머니가 눈물 담아보낸
 할아버지 보러 온 바람이다.

구름은 두둥실
 뭉게 구름 우리 마을 덮는다.
 어디에서 온 구름일까?
 북한의 큰아버지가 그리움 태워보낸
 고향 보러 온 구름이다.

파도는 헐떡 헐떡

너울 파도가 해안선을 감사악는다

어디서 온 파도일까?

북한의 동포들이 통일 노래 띄워서

보낸 조국보러 온 파도이다.

태양은 쟁쟁

찬란한 동해의 태양은 7천만 가슴을 달군다.

어디서, 어디서 온 태양일까?

하늘 나라 목황상제가 평화 옆어 보낸

통일조국 보러 온

온 겨레의 소망실고 온

희망의 태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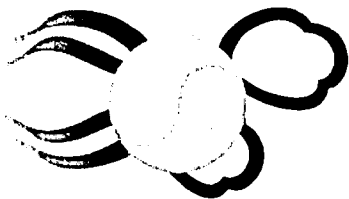
태극무늬의 어울림

장미선 / 풍기초등학교 6학년

태극무늬
헝홍색은
참 잘 어울려.

감싸 앉고 휘도는
헝홍의 무늬 속에
끝없는 빨갛과
생명이 엮보여.

남과 북도
그렇게
어울릴 순 없을까?



백두봉의 구름과
한라봉의 구름
어우러져 흐르듯이

북쪽 아이
남쪽 아이
손 이어 잡고
크게 크게
원무를 출 손 없을까?

오십년을 쌓아 올린 커다란 담장에
반가운 작은 쪽문이 달렸지.

담장의 슬픔 간직한
이삭가죽 드나드는
작은 쪽문.

부모 형제
아들 딸을 감싸안고
뜨거운 눈물 흘리다 보면

언 땅이 녹을거야
담장도 무너질거야.

담벽없이
확 트인
삼천리 금수강산,

쪽빛 동해 가르며
해돋이도 힘차거야
웅장할거야.

침홍의 태극무늬
참 잘 어울려 흐르듯

남과 북
어깨 곁고
문누리릐 누빌거야.

북녘 친구에게



안 새 슬 / 구미여자중학교 1학년

너를 그리며
힘껏 소리쳤지.
내 맘 담은
메아리 소리
멀리 울려 퍼져

원망과 한숨의
저 가지철망 넘어,
임진강 푸른 강물
세찬 물줄기 가르고
자유의 다리 건너,

북쪽 어딘가에
 혈벗고 끓주리고 잊을
 너의 맘 한 구석
 따스한 햇살 되어주고

갈 곳 잃은 철마
 신의주 향해
 달릴 수 있는
 힘 되어주고,

지난날, 이미
 나누어져 버린
 한나라의
 피맺힌 땅에,

지난날, 이미
 찢어져 버린
 한겨레의
 한맺힌 가슴에
 약하고 희미하나

함 줄기 빛 되길,
작지만 조금이나마
하나의 희망 되길
꿈꿔보며,

오늘도
마음 속
너를 그리며
통일을 그리며,
소리쳐 본다.

이제

정연희 / 청리중학교 3학년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가 있다.

한민족은 희웃을 즐겨입는 순수한 백의 민족이다.

한민족은 높은 금지와 자부심이 있다.

한민족은 하나이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가 깨지고 반도는 불타 물랐다.

순수한 희빛은 피빛으로 물들어 갔다

금지과 자부심은 꺾여 버렸다.

우리는 둘이 되었다.

반도는 물부짓었다.

희빛은 사라져 갔다.

편인 금지와 자부심은 속속모책으로 무너져갔다.
그리고 둘은 경쟁하기 시작했다

반도는 우리에게 외쳤다.
사라져 가는 흰빛을 되찾으라 했다.
무너져 가는 금지와 자부심을 다시 세우라 했다
한민족을 되찾으라 했다
우리가 지켜온 것들을 다시 세우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답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반도에게 다짐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재건해 보겠노라고
우리의 힘으로
반도를 이어 유구한 역사를 빛내보겠노라고
우리의 힘으로
피로 물든 흰빛을 되찾아 보겠노라고
우리의 힘으로
놓은 금지와 자부심을 세워보겠노라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보겠노라고

밭도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번 물이든 피빛은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무너진 금지와 자부심은 세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둘이된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것이다

조금이나마 통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잇는 우리의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살아 잇는 우리의 빛으로

이제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이 밭도에

한민족이 다시 설 때까지...

친구들아

윤미경 / 용궁중학교 2학년

친구들아

소리쳐 보자, 친구들아.

북녘 땅 끝에 솟은 백두산이 울리도록
남쪽 끝 섬에 있는 한라산이 울리도록
“통일!”

하고 큰 소리로 소리쳐 보자

느껴 보자, 친구들아.

북서풍이 가져온 해맑은 미소를,
남동풍이 가져갈 어여쁜 보조개를,
별님이 들려주는 평양 시내 이야기 를,
달님이 들려주는 서울 거리 이야기 를,

통 일!



꿈꾸자, 친구들아.
 한라산 평원에서 땀방질할 그 날을,
 낙동강, 푸르디 푸른 물에 미역감을 그 날을.
 금강산 바윗돌에 함께 앉을 그 날을,
 대동강 맑은 물에 낚 비취 볼 그 날을.

친구들아, 친구들아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만 우리 동포
 모두 모두 열사라고
 참박웃음 지을 그 날,
 새 날을 손꼽아 기다리자.

핏줄

이 희 응 / 후포고등학교 1학년

한 색

같은 모양

핏덩이가 터져

세상이 모두 붉은

물음으로 가득하던 날

그 손 피와

결인 맘 속에서

할아버진 헤어나지 못해

할머니 가슴에 삼켜로

아버지 마음엔

알지도 못할
길 그리움으로 물혔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 아버진 얼마나 그리운지
날만 되면
때만 되면
늦동이 얼굴에
그리움의 세월만큼 거칠어진
당신의 얼굴을 비비시다.

강이라 되돌릴 수 없다지만
막힌 물길은 티물 수 있으리.
그 물길 트러 가리
할머니의 세월
아버지 그리움보다 앞서 달리리.
꿈길 핏줄 이어이어 달리리.



통일을 기다리며

김 장 은 / 무산고등학교 3학년

떨리는 목소리
끈을 타고 들어간다.
숨박꼭질하는 칼끝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느새 목걸이를 겨누고 있다.
숨을 내쉬기라도 하면
금새 핏방울이 떨어질 것 같다.

이 낡은 새벽녘 속에서
휘날리는 깃발은
힘없는 작은 소리를

더욱 깊게 맛들고,

피 묻어남 옷자락 끝으로
살아나는 함성에
이제 슬픈 잠에서 깨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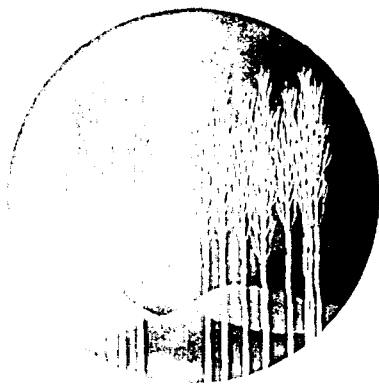
태백 준령을 세차게 달려
한반도를 흐르는 강이 되어
나 여기에 흘러 무나니
참회의 눈물
들으소서.

포옥 달렸던
허허했던 지난 날의 광장
그 슬픔의 등지는 허물어지고
멀리 내려치며 떠오를
그리움의 계층 위에

성신의 부름이 듯 종소리는 땅 사이를 비집어 들고
태고적 심화가

나즉히 내려앉아
나는 협사의 나래를 펴고 있다.

아이들
그리운 조국이 보일 듯하다.





우리가 하나 되면 빛을 받는다

김 미 정 / 구미여자고등학교 2학년

내 눈 앞의 청조망은
내 몸을 넘어서 하늘빛에 다다라
제자리가 아닌 양
서늘프게도 외로웁게도
서 있구나.

이를 바라보다
어느덧 내 눈가에는
서러운 눈물 한 방울이 맺히고,

어둠 가운데 서 있던
이 서늘픈 혈조망이
거두어지는 날엔

내 당신을 맞으러
한쪽 발 헛디디면서도
뛰쳐 나오리이다.

그대가 내게
환한 빛을 입가에 머금고서
손을 내밀어 맞닿으면,

내 다 큰 한 손으로
그대 등을 부드럽게 강하게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리이다.

당신과 내가 하나되면,
우리가 하나되면,

있었던 이 땅덩어리가
함박웃음 한가득
가슴에 품어 돌아오고,

하늘 또한 아시고,
더욱 더 환한 빛을
눈부시도록 내뿜게 하시리이다.



경남



들판

이 유 진 / 사파초등학교 4학년

땅도 하늘도
목이 말라 지켰다.

퍽퍽 금이 간 논바닥
애태우는 농부의 마음,

싸! 싸! 단비가 쏟아지는
꿈이라도 꾸어보자.

하늘 향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물리자.

말라가는 농촌들판
찰랑찰랑 물이 살리도록.

절망의 눈에 목타는 농촌에
희망을 심자. 꿈을 담자.

출렁이는 황금들판
괘지나 칭칭!
풍년이 들려오네.



작은 फिल्म 들판

이 승 미 / 월포초등학교 6학년

나는 들판에 앉아서
스르르 흘러가는
강을 쳐다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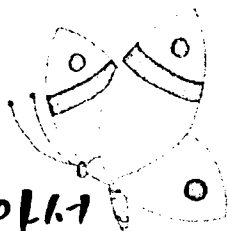
나는 들판에 누워서
파닥이며 힘차게 날아가는
새를 쳐다봅니다.

나는 들판에 누워
잔잔히 흘러가는
구름도 쳐다봅니다.

그리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직해 둡니다.

언젠가
저 강도,
저 새도,
저 구름도.





그 날, 들판을 날아서

박 상 아 / 양곡초등학교 6학년

그 날, 나는
들판위의 나뭇잎이 되리
이삭가죽 부등켜 앉고
강같이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리.

그 날, 나는
들판위의 나비가 되리
두 팔에 날개를 달고,
금강산, 백두산
날아다니리.

그 날, 나는
들판위의 새가되리
잭잭잭 - 지지배배 -
평화롭게
기쁜노래 부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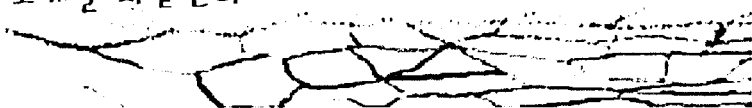
아 -
그 날, 나는
포근한 들판위의
혈없는 아이가되어,
덤실덤실 춤을 추리라.

드판

정민경 / 봉림중학교 3학년

초록빛 가녀린 풀 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딘가 있을 생명의 꺾줄을 찾아
몸을 뒤척인다.

이른 봄, 굵은 땀방울 흘리며
그들을 보살폈던 이는
광명 할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굳은살 배긴 손에
고개를 파묻는다



물을 갈구하는 애처로운 모습
 내 기억속 깊숙히 자리 잡았건만
 우리집 물소리 끊일날 없고,
 학교 수돗가는 마를날 없다.

시나브로 벼들은
 이삭을 품어 보기도 전에,
 황금물결 출렁이는 추수의 물결을
 미처 타보기도 전에,

황갈색 왜소한 모습으로
 한줌의 바람이 되어
 허공으로 흩뿌려 졌다.

흔한 물 한잔을 보며 전국민이
 잠시나마 우리의 가녀린
 생명의 젖줄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 하나 많으로도
 그들이 마음껏 생명수를

들이킬수 잊으려만...

단비가 내린다.

바짝 말라버린 들판위로

진주빛 영롱한 빗방울이

방울방울 우리의 마음을 담아

커다란 물줄기를 뿜아낸다.

어머니를 닮은 들에 서서...

진의 난 / 반송여자중학교 3학년

조용히 눈을 감고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자그만 생명이
싹을 틔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지금 네 발 아래의
흙 한 줌을 집어
가만히 들여다 봐

끊임없이 자라나는 생명들의
힘찬 발걸음이 보이지 않니?

따가운 햇살아래
온 몸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네 어머니를
담은 이 곳은

수많은 생명들을
눈 뜨게하고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있어



겸게 찌 들어가는
우리의 눈동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환한 미소를
항상 머금고 있어.

아이야,
세상에 지쳐 너무 힘들때
눈을 감고 잠시 쉬어가
사랑으로 채워질 이 곳
네 가슴 속 들길에서...

들판

도 예 린 / 창원반림중학교 2학년

이글거리는 햇볕 밑에서
 넓은 들판이
 시들시들 말라 죽어갑니다.

햇볕에 몇 달을 시달리다
 윗논의 벼는
 살아갈 힘을 잃어갑니다.

논에 물을 대야 할
 윗논 농부도
 지금은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열심히 눈에 물대기 바쁘던
아랫논 농부는
윗논의 사정이 안스럽습니다.

시들시들 타들어가는
윗논 벼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니다.

다 같이서 잘 살자고
아랫논 농부는
윗논에도 물걸을 끌어줍니다.

수년간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세월만큼 조금은 서먹하지만
그래도 윗논은 이웃입니다.

윗논 벼들도 아랫논 벼들을 따라
조금씩 되살아나고
날시도 그렇게 보답 시원합니다.

오래도록 손꼽아 기다리던
반가운 단비가
내일이며 즐기치게 내려줄 것입니다.

들판-쫄레꽃 그 붉음의 향기로

이 민 정 / 삼천포중앙고등학교 2학년

개망초

흐드러지게 핀

유월의 그 한가로움은

들판의 풀빛을 채운다.

아무 생물도 숨쉬지 않았던

태초의

그 공간속에서도

너많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역겹의 세월이 흘러
 갖고 닦았던
 그 웅장한 자태는
 그대로인데...

너와 나만이
 눈물의 그리메로 가득차
 삭아 앓아버린 고리로
 멀기만 멀구나

서로의 마음은
 어둠의 흠빛으로
 가리워져 버리고
 남은 건 텅텅한 흠내음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로 짓밟힌 풀잎들은
 그 풀물이 눈물이 되어
 코 끝에 알싸한 향기로 내뿜었다.

이제는
 따듯한 북녘의 바람이

들판의 푸른 장막을 걷고
녹음을 타고 내리듯
슬며시 우리의 생채기를 스다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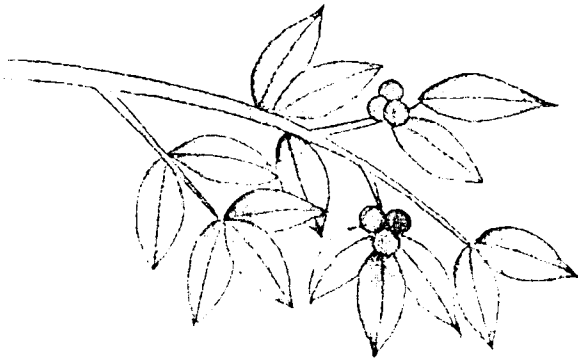
따스함의 여운이 감돌 즈음
한 곡 한 곡
햇살을 조각내어 빼어박은 듯
그 새파란 잔디 위에

쌩쌩함이 깃든
짙레꽃의 향내가 가득
실려 있다.

들판의 풀밭 사이로
황혼이 굴러 내리며
투명한 은실을 흐르르 몰아
자신의 향내를 태우듯...

그 짙레꽃의
붉은 향기가

팥찰 열매를 맺을 때
너와 나
하나의 씨앗이 될 터이다.



드판에 비내리면

우 은 진 / 마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농익은 듯 여기저기 툭툭 벌어지는
별경고 파가운 망거죽 위로
드디어

촉촉한 피아노 소리 들려온다
스타카토 스타카토 툭툭
갈라진 틈새로 물리는 밝음 밝음



어느새 드판의 마디마디마다
연두빛으로 터지는
형명함 오케스트라.

들판

이 소 영 / 창원정보과학고등학교 3학년

눈을 감으면
먼 곳 어디에 있가
나를 부르는 포근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 어릴적에
늘 함께하던 동무들
말뚝박이 놀이하러 놀았구요

어무이 찾으러 오는 소리에
더 놀겠다 떼스며 매맞던 나
동무들의 험진한 웃음 기억이 나지요

늑이들 나물캐러 오면
 '어흥' 하며 나타났 우렁
 귀엽다며 미소주던 그 모습
 기억이 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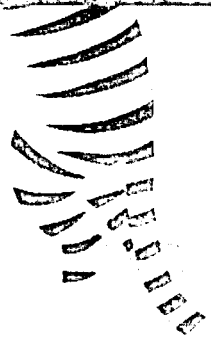
사내 녀석들 내편 네편 갈려
 죽먹질 해대며 뒹굴던 자리며
 어느새 동무가 되어 어깨를
 마주하던 곳

이제는 바삭 말라버린
 세상과 같은 모습이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곳엔
 보고싶은 동무들 어여쁜 늑이들
 그리운 내 어무이
 가슴가득 그곳을 적셔줄
 행복한 낙원이 있지요





제주



희망의 꿈

양 지 연 / 성산초등학교 6학년

백두산 정상에
내가 올랐네
천지의 맑은 물이
나를 받기네

장군바위 올라
힘껏 불렀네
어서오라 통일아
야호 야호

북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반기네
같은 조상 같은 핏줄
하나의 거래

덩덕쿵 덩덕쿵
북, 장구 맞춰
더덩실 더덩실
춤을 추면서

손에 손을 잡고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한라산 백록담엔
내 친구 없네
들린다 네 목소리
야호 야호

이제 보니 통알되어
 곁학 왔다네
 열씨구 열씨구



어제는 백두산
 오늘은 할라산
 헤어지지 말자고
 열싸 안고서

꼭꼭 잡은 손엔
 사람이 오가네
 다시 만남 기쁨
 깨알아 나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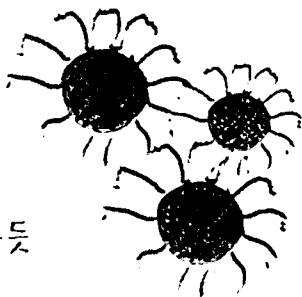
통일을 향한 민들레 꽃씨

김혜지 / 새서귀초등학교 6학년

휴전선 쪽에서 본
하얀 민들레 꽃씨가
휴전선 너머 북쪽으로
어깨동무하듯
서로 엉켜 날아가고 있어요.
작년 6·15공동선언을 하던
남북정상들이 꼭 쥐든 손처럼.

휴전선 쪽에서 본
하얀 민들레 꽃씨가
휴전선 너머 북쪽으로
통일을 향해

서로 부둥켜 날아가고 있어요.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며
 정다운 이야기 보따리 얹고 가듯
 휴전선 쪽에서 본
 하얀 민들레 꽃씨가
 휴전선 너머 북쪽으로
 통일을 향해
 열사양고 날아가고 있어요.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듯
 통일열차를 타고 가듯



나도 민들레 꽃씨가 되어
 바람따라 통일의 꿈을 얹고
 그렇게 날아가고 싶어요.
 우리들도 이제
 민들레 꽃씨가 되고 싶어요.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꼭 합치고 싶습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

최 이 나 / 종달초등학교 5학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 맺힌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로
7천만 동포가
한 소리로 부르는 아리랑 노래

남에서 북에서
따로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리랑

휴전선을 넘나들던
 현세들도
 계절을 노래 하는데
 임진강, 대동강 물도
 서해에서 만나
 쪽빛으로 출렁이는데

압록강 물줄기가
 동해를 휘돌아
 제주도 를 보듬어 안는데

새들도, 강도, 바다도
 함데 어우러져
 노래하는 이 삼해에서

오천년 역사의 한민족을
 제 강산, 제 형제를
 부르지도 못하는구나



우리도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몸과 마음 하나되어

노래를 부르자꾸나
형제를 만나자꾸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자꾸나

푸른 하늘 아래서
서로 숨결 느끼며
노래를 불러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내 반쪽의 기다림

이 분 화 / 서귀포여자중학교 3학년

말로만 평화인가요
 말로만 통일인가요
 유월이면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말 한마디

하나의 땅위, 하나의 하늘 아래
 얽히고 설키여 민족의 눈물을 짜내는 드리워진
 철조망 아래
 그리움으로 조여드는 고통을 씻어내려는
 간절한 소망담아 오늘을 사는 단군의 후예들이 있다.

핏빛 충성을 다바친 호국 영령도
 가나기 세월의 한을 노래한 민족애의 꿈도
 아직은 철조망을 끊지 못했다.

50년전, 공포의 수레바퀴로 휘감았던
 전쟁의 쓰라린 아픈 과거의 기억이
 두 동강난 현실의 비참함을 잊게 했을 뿐
 태양보다 진한 민족의 정열을 가진
 영원의 대지 위에 숨쉬는 우리
 한 민족, 한 핏줄 그 이상 끊을
 수 없는 단군의 후예다.

이제...

서로를 견제하던 그대와 나의 두손을 잡고
 조그마한 변화의 싹을 키워 웃음꽃을 피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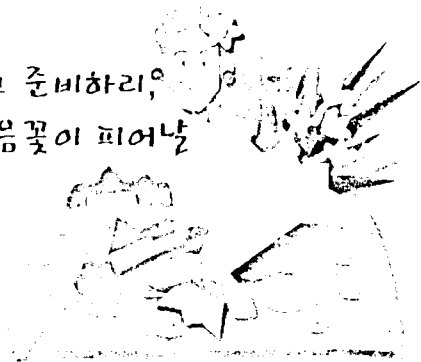
냉전의 큰 흐름 속 어둠의 얼굴을 걷고
 이산가족의 생이별을 기쁨으로
 꿈꾸는 소망을 실현의 빛으로
 보다 넓고 깊게 소망을 담아


웃음으로 승화되는 만남의 정을 나누며
 겨레의 염원을 심고,
 겨레의 위상을 높이자.

기름진 옥토 위에 둘로 나뉜 우리의 정
 처음처럼 그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결핍은 빈털터리가 되어도
 후회의 미소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마음 속의 허접함이 맘도는 것은
 기다림에 지쳐 시린 가슴을 녹여줄
 내 반쪽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이다.

우리 단단한 가슴 여미고 준비하리,
 저 대지 위에 소박한 웃음꽃이 피어날
 통일의 그날을...





칠조망 너머의 세상

문 슬 / 신성여자중학교 3학년

사람 냄새가 그리워
목메도 록 불러보지만

아무도 대답해주는 이 없다.
메아리조차도

사람 냄새가 그리워
야윈 손 뻗어보지만

아무도 잡아주는 이 없다.
바람조차도

가깝고도 먼 저편의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목은 점점 타오르는데
손은 점점 야위어 가는데
부대끼며 날아가는
함 샹의 까마귀

내 마음 어느새
그 뒤를 쫓고 있다.

허공을 향한
힘찬 날갯짓으로...

두 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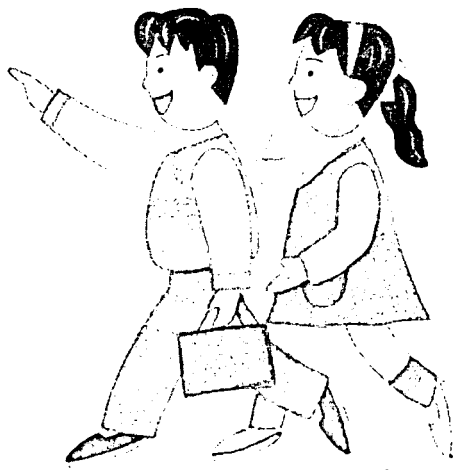
고 선 의 / 조천중학교 3학년

두 나그네가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발이
함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나그네는
한 발로만 걸어야 하는
걸어도 제자리인 나그네일 뿐입니다.

두 나그네는
한 발로만 서서

서로 같은 해를 보며
서로 같은 달을 보며
두 발이 정답게 거닐
한반도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날마다 서로를 그리워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피었다



김 경 희 / 한림고등학교 2학년

하늘에 구름이 피었다.
달빛에 흘러 저만치 갔어도
구름은 또 다시 하늘을 찾는다.

바다에도 불이 켜진다.
해가 잠들고 밤이 켜지면
어제처럼 바다는 반짝거린다.

나의 하늘에는
나의 하늘에는
이제 가버린 구름이 돌아오질 않는다.

텅 비어 버린 하늘...
 나에게 구름이 없다.
 나의 바다에도 불빛은 없다.
 어둠이 삼켜버린 바다에는
 덩그러니 고향소리만 헤매인다.

나에게는
 하늘이 두 개이고,
 바다가 두 개이다.

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늘도 바다도
 모두 두 개란다.

두 쪽 하늘이 미워서
 나의 가지는 빨지 않는다.

저쪽 하늘에
 혹시 잃어버린 구름이 있나 싶지만
 지금은 난쟁이 나무로 남으려다.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흘러가며는
나의 가지는 하늘을 찌르리라.

하늘에 구름이 피었다.
달빛에 흘러 거만치 흘러갔어도
구름은 또 다시 하늘을 찾는다.

바다에도 불이 켜진다.
해가 잠들고 밤이 켜지면
어제처럼 바다는 반짝거린다.

호기속소리

강민협 / 오현고등학교 2학년

얼마 전 생일
두 친구가 선물한 허리띠

더듬없이 허리를 꿰차고선
곧게 다문 단추만이...

별써 지켜버린 호랑이
입가엔 한숨이 나오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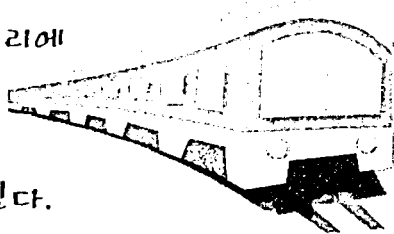
자그마한 암세포와
번지는 지리밭은
왜 이리 너른가?

유월 어느 날
풀어진 단추 두 개와

그 사이를 오가는
슬한 처방전 따위들

그리고 훗날
허리띠를 끊어놓는
지리밭의 호각소리에

나 얼마 위에서
너를 향해 내달린다.



항늘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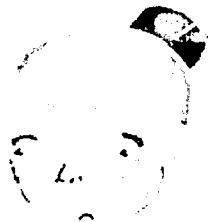
박 규 빈 / 제일고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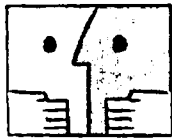
하얗 모시 주름 처럼
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억센 그리움이 있습니다.

깊은 가슴 속
응어리져
쉽사리 소화되지 않는
얼운 그리움이 있습니다.

곱게 말아 물린
뒷 머리채에 꽃힌
기다란 비녀처럼
수없이 여린 가슴을
절러대는 그리운 이름들...

할머니의 두 눈가에 맺힌
서러운 눈물 방울이
오늘 따라 더욱 애처로이 보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되어



초판인쇄일 ■ 2001년 9월

초판발행일 ■ 2001년 9월

발행처 ■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021

홈페이지주소 ■ www.unicdu.go.kr

디자인·인쇄 ■ 오성사

전화 02)2266-0795

